2023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실험실



비매품/무료

9 791198 201430 03060
ISBN 979-11-982014-3-0

의정부문화재단 UIJEONGBU CULTURAL FOUNDATION
문화도시 의정부

2023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실험실

일상과 도시를 더 재밌게 바꾸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전

2023

일상과 도시를 더 재밌게 바꾸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전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실험실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실험실

일상과 도시를 더 재밌게 바꾸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전



여는글

문화도시지원센터
문화활동팀
이예담

<문화도시 100만원실험실>은 문화도시의정부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대표 사업입니다.
사업의 문턱을 최대한 낮춰, 우리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 누구나 더 나은 도시와 일상을 위한 상상을
마음껏 실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나 작은 시도가 어떻게 도시를
바꿀 수 있겠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험지기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
워크숍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곤 합니다.

"각자의 구석을 바꿔 보아요!"

나의 작은 시도가 나 자신과 내 일상·이웃·동네를
바꾸고, 그 변화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게 된다면
도시는 이미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2023년 봄과 가을.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연으로 모였지만,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낸 의정부 구석구석의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이 책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에 담아낼 수 없는 귀한 노력들이라,
감사하고 아쉬운 마음에 실험마다 문화도시
에디터 취재 기사를 QR 코드로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에서 자라나고 살아갈 이들이,
이 책을 통해 도시의 움직임을 느끼고 같은 꿈을
그리게 되길 바랍니다.

2023
100만원실험실
아카이빙북 편집자
강민지

의정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의정부를 더 다채로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고,
몰랐던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열의와
도전은 보는 이를 설레게 했습니다.

이 책에는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나와,
내 이웃과,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낸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만의 것을 세상에 내보였던
실험지기들의 진심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목차

사업 소개 004
사업 통계 006
상반기 100만원실험실 008
관광·탐방 010
문화예술교육 018
문화이벤트 024
세대공감 032
주민공동체 036
지역예술 041
지역자원 045
청년 050
환경 053
하반기 100만원실험실 060
관광·탐방 062
문화예술교육 064
문화이벤트 071
세대공감 075
주민공동체 085
지역예술 093
지역자원 103
청년 108
환경 109

사업 소개

문화도시의정부의 100만원실험실은 100만원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의 힘과 아이디어로 자신의 일상과 도시를 바꿔 보는 용기 있는 문화 실험들을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정산 과정을 없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워크숍과 공유회 등을 통해 서로 돕고 배우는 경험을 하며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나 워킹파트너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위해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진행했고, 그 결과 총 98명의 실험지기와 약 5,000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1

1차 **심사** 4.19.~4.20. **발표** 4.26.
2차 **심사** 8.2.~8.3. **발표** 8.16.

사업에 지원한 당사자들이 직접 다른 이들의 지원서를 평가하는 심사 방식으로, 지역에 공존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은 실험을 선정합니다.

2

1차 4.30.~5.1. 중 **3회차**
2차 8.20.~8.21. 중 **3회차**

최종 선정된 참여자들이 모여 서로의 실험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그룹별 네트워킹이 이뤄집니다.

3

1차 6~7월
2차 10~11월

프로젝트 지원금을 교부하고, 본격적인 실험이 진행됩니다. 시민들은 의정부 곳곳 각자의 자리에서 기획, 홍보, 실행 단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실험을 실행해 보는 경험을 합니다.

4

1차 8.19. | 19:00~21:00
2차 12.8. | 16:30~17:30

두 달여간의 실험 경험과 소감을 나누고 자축하기 위한 즐거운 자리입니다. 실험이 나에게 준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실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설을 세워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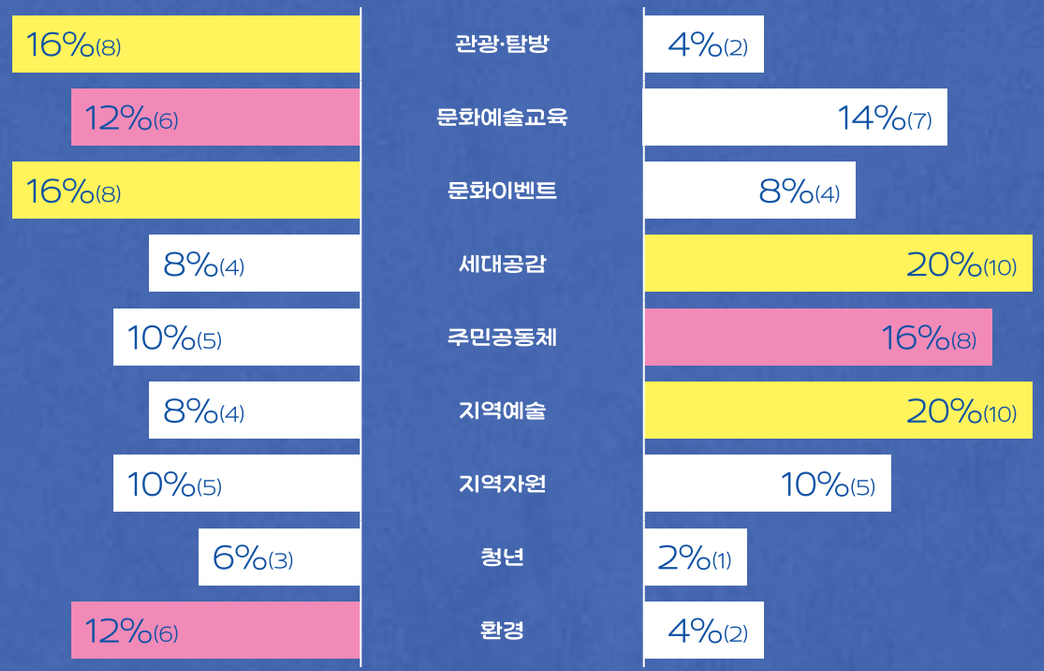


사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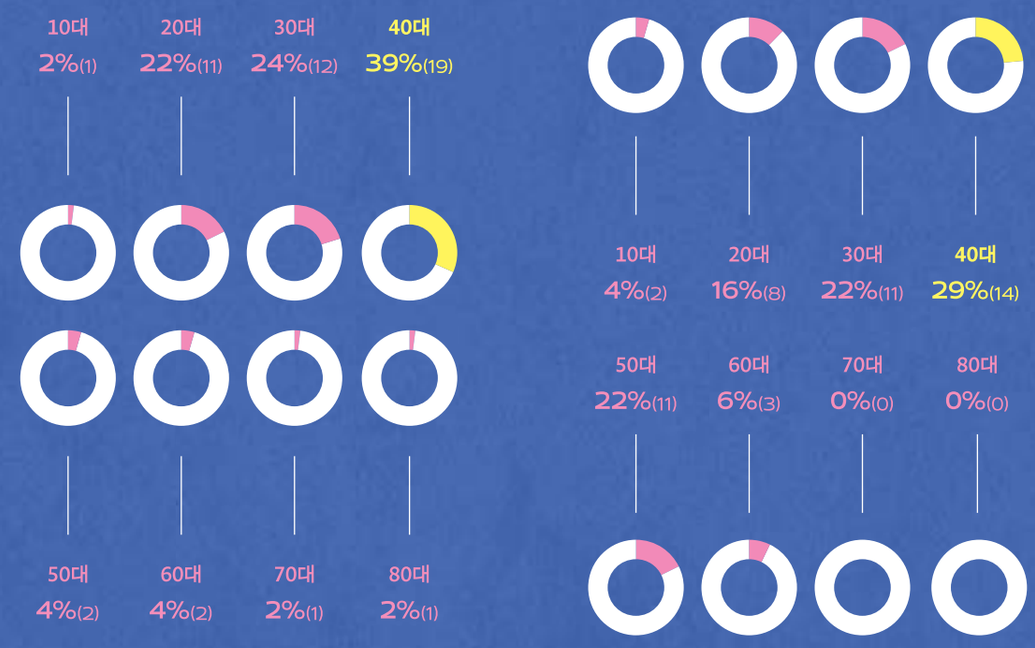
* 소수점 생략

* 단위 : (괄호)는 개수, 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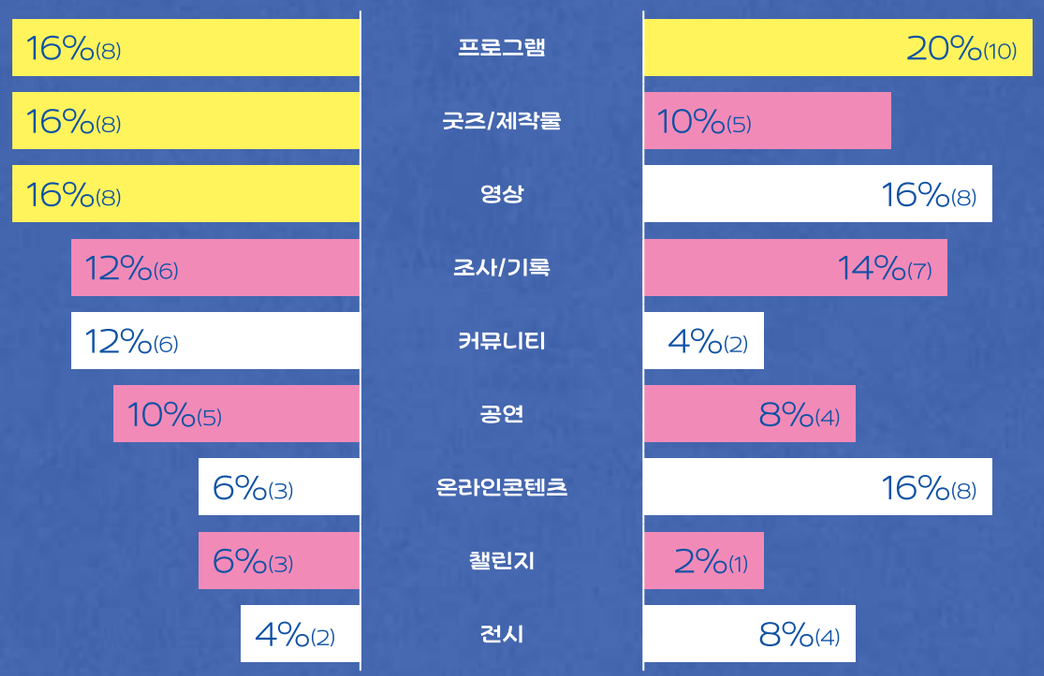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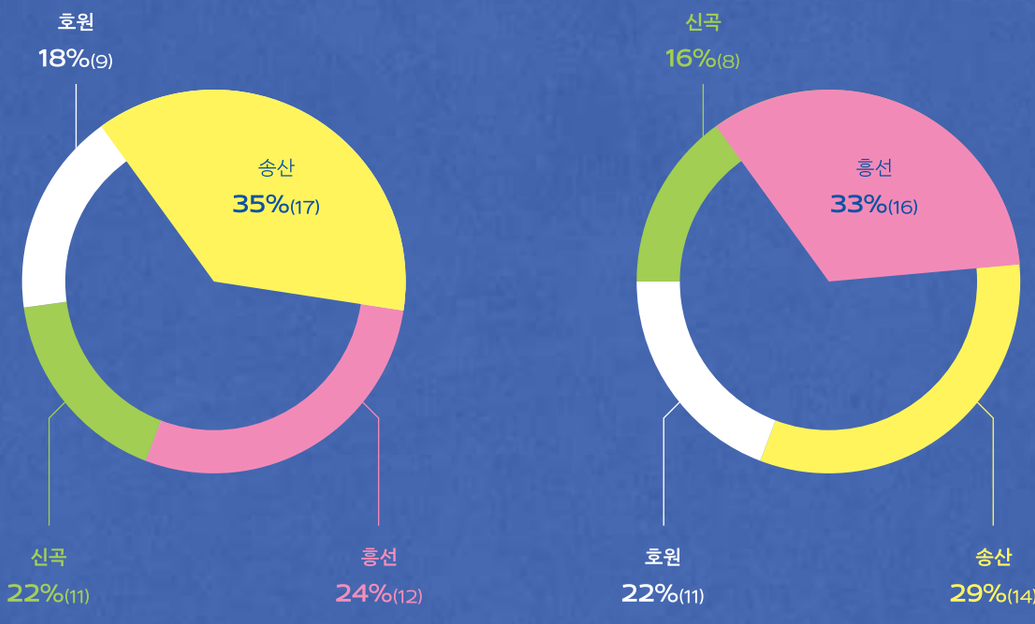
연령



결과물 형태



권역



상반기 100만원실험실

1 관광·탐방

2 문화 예술교육

3 문화 이벤트

4 세대공감

5 주민 공동체

6 지역예술

7 지역자원

8 청년

9 환경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 실험실

○ 실험지기의 결과보고서와 문화도시 에디터의 기사를 편집한 글입니다.

○ 문화도시 에디터 기사 전문은 QR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1	김은미	특명! 의정부 팔경(八景)을 찾아라	010
	배채은	신흥마을 방범대의 관찰일지	011
	안시현	의정부 경전철 여행지도 만들기	012
	안연주	뚜벅맘, 경전철로 의정부 정복하다!	013
	양승훈	자전거 타고 세계음식기행 in 의정부	014
	이일진	의정부 공방체험	015
	정룡혁	좋은 기억 친구 의정부	016
	정명수	1991생, 이공이삼 다시금 의정부로	017
2	김상옥	의정부 역사에 태극기 휘날리며	018
	박 진	문화약자의 감성으로 전하는 하모니	019
	이선휘	낭독을 통해 즐기는 연극	020
	정지혜	화가의 사랑방 손님	021
	최동욱	브레이킹댄스 체험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022
	최진선	순례주택 잡화점 in 의정boo	023
3	김혜미	책을 읽으면 예쁜 글씨가 따라온다	024
	손재이	의정부 아이돌 모두 모여라! 스으파(스트릿 의정부 파이터)	025
	손진실	의정부, 그 떨림과 살림	026
	안기현	의정 To THE 부 땐스버스킹	027
	이소희	파란 우체통	028
	이윤정	스트레스 아웃, in 의정부	029
	최윤지	의정부 포스트크로싱	030
	한우림	익명 고민 우편함: 의情부	031
4	김금숙	음악으로 찾아가는 활력과 즐거움	032
	안예은	킹스보이; 매너가 소년을 만든다	033
	이도영	어르신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시(詩) 읽기	034
	이미열	홍나는 우리요양원! “얼씨구 좋다~!”	035
5	목영대	벌말마을축제	036
	이지혜	도네리딩	037
	이효정	등린이(등산하며 배우는 이야기)	038
	임지선	자기계발은 핑계고	039
	차진미	도시락(圖時樂)	040
6	김태욱	서각예술의 대중화	041
	김한나	의정부를 빛낸 100개의 명물송	042
	이경윤	우리 동네의 특별한 씨네마쌀롱	043
	이윤석	의정부! 다 함께 시시(詩市)해!	044
7	서영진	올해 63년생 환갑, 동갑내기 의정부시도 63년생	045
	이규빈	로컬파이 레시피 : 의정부를 새롭게 감각하는 법	046
	임성우	afternoon 의정부	047
	최인종	의정부시의 메타버스 이주를 위한 준비 프로젝트	048
	최희선	알록달록 의정부 동네 색깔들	049
8	김희원	미끄러져야 달릴 수 있어	050
	이규헌	antifragile(자일) 의정부텃발	051
	천지연	청년예술살롱 야옹(野雍)	052
9	김수지	L!ttle Need!e Project : 쪼끄만 바늘 프로젝트	053
	목지연	일회용 컵 업싸이클링 화분으로 변신!!!	054
	윤미경	의정부 커피박 환전소	055
	이나래	쓰레기 고민(고산-민락)타파	056
	장정화	송산사지를 지켜라	057
	정희성	기후미식 ‘비건배달의 민족’	058

특명! 의정부 팔경八景 을 찾아라

실험지기
김은미

실험실 한줄소개
문화도시의정부의
숨은 비경 찾기,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여덟 곳의 비경을
찾아보는 실험

의정부에서 문인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미입니다. 주로 자연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우리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는 도봉산, 망월사 등 경관이 수려한 산새와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많이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 팔경을 선정하면 1경부터 8경까지 찾아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 더 많은 애정과 자긍심이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이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명! 의정부 팔경을 찾아라'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인 의정부의 멋진 비경을 찾는 실험입니다. 함께하는 실험지기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4곳을 선정하고, 또 각자 추천하는 장소 4곳을 모아 총 8곳을 선정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멋진 비경을 찾을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험이 6월~7월



가장 더운 기간에 진행되어 주로 아침 일찍 답사를 했고 도심 속에서 트래킹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동네 정자에서의 꿀 같은 휴식,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고양이와의 만남이 좋았습니다. 특히 마을 정자에 드러누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의정부 8경은 거창한 곳이라기보다는, 가족과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희의 취향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던 우리 주변의 좋은 곳들을 편안하게 즐기는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은미 의정부에는 멋진 비경을 간직한 곳들이 많아요. 의정부의 비경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풍경들을 향유하고 싶었어요. 나아가 의정부 8경을 통해 의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 내고 싶었습니다.



신흥마을 방범대의 관찰일지

배채은 신흥마을 친구들을 모아, 이 마을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한번 열심히 놀아 보자고, 또 기록하고 이 마을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과 우리 가족의 뿌리일지 모르는 이 마을을 마음에 남기는 겁니다.



실험지기
배채은

실험실 한줄소개
신흥마을에 거주 중인
만 2세~4세 친구들의
마을에서 생긴 일!

저는 신흥마을에서 두 돌이 막 지난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신흥마을은 제가 의정부로 오게 되며 처음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시작했으며, 아이도 낳았으니 신흥마을은 자체만으로 영원토록 잊지 못할 곳이겠지요.

그런 신흥마을이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는 아직 이곳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별개로 머지않아 내 아이의 뿌리는 아파트 단지로 덮이게 될 테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 근사한 나무나 놀이터로 덮인 부지 앞에서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라고 회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한 부분에는 어릴 적 놀던 동네에 대한 추억이 가득합니다. 강원도에서 평생을 자란 저는 놀이터에서 물풍선을 던지고,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구슬치기를 하고, 담벼락 아래에 앉아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내 마을은 마음의 별이 되어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보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재개발로 없어질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사는 '마을'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신흥마을을 소개하자면, 대부분 노인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드물고 대부분 제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오래된 빌라들입니다. 실험명을 고민하다가,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기록하자는 의미로 관찰일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마을에 누가 사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방범대처럼 구석구석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방범대라는 명칭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먼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매일 놀이터에 쉬러 오시는 할아버지가 꼬깃꼬깃한 천 원을 건넸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또 혼자 놀던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며 오후의 놀이터에선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들은 많이 산 채소와 아이들의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 아빠들은 야구 이야기를 신나게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가지러 가기도 합니다. 다음날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작아진 신발을 물려주고, 이제는 옆집 아이가 좋아할 장난감이 뭔지 압니다. 집안의 종이류와 캔류를 단정히 정리하여 폐지를 모으시는 이웃분께 전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변화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민망하게 웃음 지으며 지나가지 않으니까요.

의정부 경전철 여행지도 만들기

실험지기
안시현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서 태어난 삼형제가 만드는 의정부경전철 여행 지도



저는 항공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스무 살 안시현입니다. 어린 시절, 저와 제 동생, 사촌 형과 셋이서 의정부경전철 부근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서로 바빠서 지금은 자주 만나지 못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삼형제의 추억을 회상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제가 만든 지도가 여러 사람의 추억이 묻은 지도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험을 계획할 때는 장소가 많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실험을 진행해 보니 추가되는 장소가 너무 많아져서 추리는 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한테 장소 추천을 받고, 100만원실험실 조원 4명과의 만남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직접 걸어 다니면서 계획했던 장소를 파악하고, 잊고 지냈던 공원이나 식당 등 추억의 장소들을 찾았습니다. 경전철 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걸어가 본 적은 처음인데 참 즐길 거리가 주변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도를 그릴까 하여 시도를 해 봤는데 모두 그림 솜씨가 좋지 않아 앱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취합한 정보들을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점은 의정부 시민들이 모르는 곳 혹은 잘 아는 곳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 혹은 내가 아는 곳이 있다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선 부모님이 지도 공유를 부탁하셔서 지인분들과 맛집을 찾아가셨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뿌듯한 날들이었습니다.

안시현 제가 만든 지도, 혹은 그 정보를 통해 다른 의정부 시민들의 추억의 장소들도 입력된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만드는 경전철 여행 지도가 더 확장되지 않을까요?



뚜벅맘, 경전철로 의정부 정복하다!

실험지기
안연주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해 의정부의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책자로 만들기

이사를 오기 전까지 제게 의정부라는 도시는 태어나 단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낯선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딸아이의 대학 근처인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되며 경기도민들이 느끼는 교통편에 대한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큰 도시였고, 거주하는 동에서 다른 동까지 이동하려면 버스로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에 도시 내에서 이동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버스가 2~30분에 한 대씩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딸아이가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해 보고 편리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침 경전철 정거장 중 한 곳이 도보로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이용해 보게 되었는데 버스로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거리가 경전철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열차 운행 간격도 짧기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해 의정부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소개한다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가게에 활기가 넘칠 것이고, 우리 도시의 대표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생기가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을 활용해 1~2시간 가량 꾸준히 걷고, 가독성이 좋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 딸아이와 여러 가지 디자인 레퍼런스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를 대표하는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 보며 의정부를 살펴봤습니다. 15개의 정거장을 모두 돌아다니는 동안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에도 가보고 그 동네에 거주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추천지도 방문해 보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의 다양한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기록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자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어 본 책자가 제가 발견한 공간들로 하나씩 채워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안연주 100만원실험실은 50대에 접어든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맛본다는 게 어려운 나이지만, 무언가에 시도하는 도전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고 일상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세계음식기행 in 의정부

실험지기
양승훈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 소재한 세계 음식점을 방문하여 세계 문화를 체험하며 일상에서 행복을 함께 느끼고, 의정부의 새로운 모습 발견하기

‘자전거 타고 세계음식기행 in 의정부’는 의정부에 있는 세계 음식점을 발굴해 의정부 시민들과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세계 문화를 체험하는 실험입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해외로 나가는 길이 막히고 인간관계도 꽤 멀어졌습니다. 세계 여행은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사람들과 만나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늘 가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닌, 의정부에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을 알아보고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나 후기가 좋은 음식점을 찾아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멕시코, 캄보디아, 태국, 이탈리아, 인도 등 총 6곳의 세계 음식점을 선별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48명으로 나라별로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9번의 만남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에 이런 곳도 있었어요?”, “음식만 먹었는데 여행 다녀온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들었고, 이색적인 장소에서 나라별 음식을 먹을 때는 마치 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착각도 느끼게 되었다고 하여 의도했던 실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나라 음식이 궁금해서 모였기 때문에 쉽게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걸어서 세계속으로’라는 KBS 프로그램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놀러 가는 기분도 느껴 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 보니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도보 또는 대중교통, 자전거를 타는 것도 새로웠다고 말하는 참가자들이 많아 실험을 기획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양승훈 의정부에서 세계음식을 맛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의정부 공방체험



이일진 만들기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도 뿌듯하고요. 제일 좋은 건, 주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험지기
이일진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 있는 공방을 방문하여 체험하고 공방 지도를 그려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4명이 구성한 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경제 활동에만 집중하는 일상을 살다가 좋아하는 걸 잊고 삽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저부터도 틈만 나면 숏폼(짧은 영상)이나 SNS를 보았고, 제 취미가 무엇이었는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체험 수업하는 걸 보고 저도 다양한 종류의 체험을 직접 해 보고 싶었습니다.

실험 계획 전에, 실험실 팀원들에게 취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시청 등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팀원들과 체험을 하고, 대화를 통해 어쩌다 우리가 취미를 잃고 살았는지, 취미를 갖게 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실험으로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면서 나만의 스타일로,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의정부에 정말 많은 공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방이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험의 의도대로 의정부 지역 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공방을 발견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공방을 찾아서 체험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공방을 찾아내다 보니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공방을 한눈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공방 지도를 만들면 어떨까 의견이 나와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만든 공방 지도가 잘 활용이 돼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억 친구 의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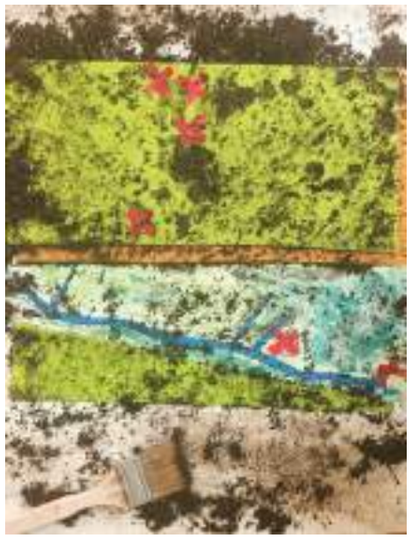
실험지기
정룡혁

실험실 한줄소개
이주민이 의정부와 단번에 친해질 수 있는 카멜레온 코스

저는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이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원활히 정착하여 마음 편하게 의정부 시민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실험실을 구상했습니다.

저는 처음 의정부에 왔을 때 긴장하고 경직된 상태였는데, 그래서인지 의정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알지 못했고, 좋은 분들을 많이 놓쳤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인 이들을 위해 의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친해질 수 있는 도시임을 보여 주고, 사람들과 돈독하게 지내고 긴장감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코스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니스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중랑천을 왔다 갔다 하다가 중랑천 테니스 백보드 연습장에 어르신들이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정부에 대해 많이 아실 것이라 생각했고, 의정부시청이 생기기 전부터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의정부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니스를 함께 치면서 의정부의 역사나 소소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테니스 백보드 연습장으로 정했습니다.



백영수미술관은 의정부에 계시는 지인분의 소개로 가게 되었는데, 그림도 좋았지만 관장님이 친절하시고 그림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미술관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패공방은 등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올라가다가 발견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분위기가 낭만적인 공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저만 알기 아까운 장소라고 생각해 실험을 통해서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초반에는 도보로 코스를 짰는데, 자전거로 변경했습니다. 의정부는 개방적이고 경치가 시원해서 자전거로 풍경을 더 낭만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자전거를 타며 그 기분을 두 배, 세 배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룡혁 의정부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느꼈고, 저만 알기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원주민들과 친해지는 것이 목적의 반 이상이었습니다.



1991생, 이공이삼 다시금 의정부로

실험지기
정명수

실험실 한줄소개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91년생 친구들이 변화된 의정부를 돌아보고, 그때를 알지 못한 동생과 함께 의정부를 돌아다님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에서 살고 있는 33살입니다. 스물다섯 살 영화전공 후 현장으로 뛰어 영화와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늘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의정부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던 중 '예전에는', '거기 아직 있어?' 등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도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실험실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가 변화하면서 주변에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의정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의정부를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원본이 사라졌지만, 공원을 촬영하는 도중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중이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들과 의정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정부역의 과거 사진을 보여 주고 이곳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이 난 우리는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의정부 거주자로서 의정부의 옛 모습을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가장 익숙한 행복로부터 의정부역과 문화 공원까지, 의정부의 대표적인 장소들을 영상에 담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련되게, 그리고 시대에 맞게 멋있어질 의정부를 더 담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세 명 모두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이다 보니, 영상을 촬영하며 진행한 제가 가장 말이 많았습니다. 의정부를 담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고, 앞으로 조금 더 의정부에 관한 브이로그를 담아 볼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을 다시 의정부로 불러올 수 있어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드론이나 타임 랩스같은 영상도 이용하여 의정부에 새롭게 건설되는 곳들을 담아 보고 싶습니다. 이번 촬영은 핸드폰이라는 단편적인 기기만을 이용했지만, 의정부의 분위기까지 모두 담을 수 있는 클립영상 제작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수 익숙하고 평이하게 지냈던 동네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 것을 느꼈습니다. 장소를 답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간 동안도 변화하고 있는 의정부가 신기했습니다.



의정부 역사에 태극기 휘날리며

실험지기
김상옥

실험실 한줄소개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며 나라 사랑의 기본이 되는 태극기 그리기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 일을 하며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옥입니다. 이 실험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평소 저 스스로를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태극기 그리는 법과 그 의미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대부분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은 의정부 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그릴 수 있게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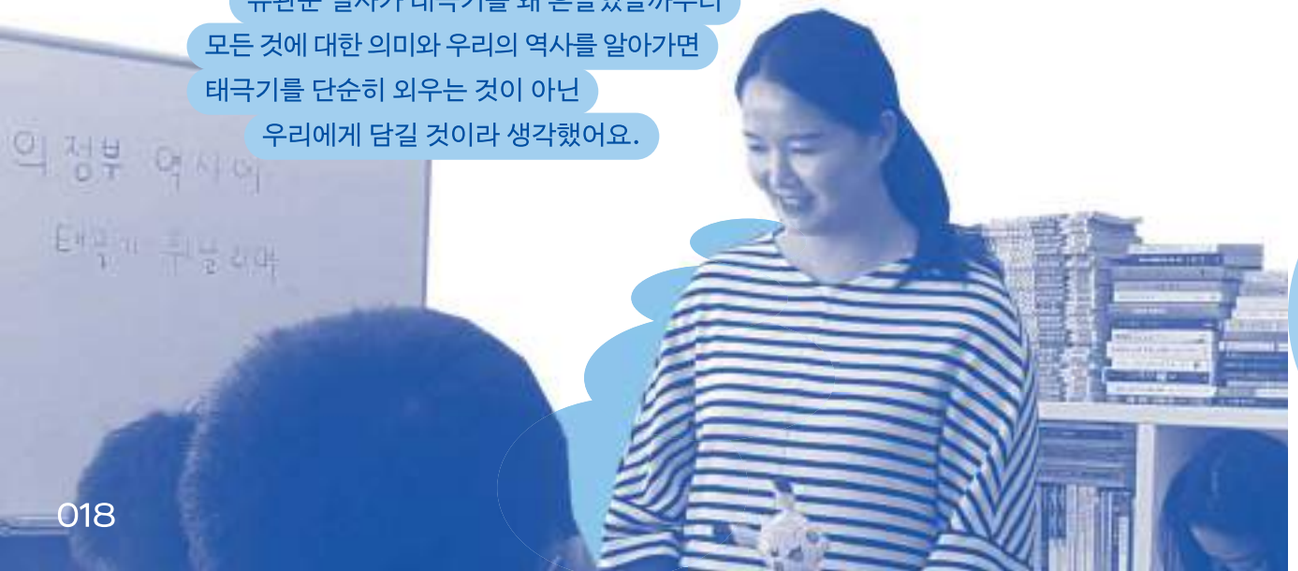
경의초등학교 앞 작은 책방인 '영희책방'에서 3주 연속 태극기 그리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회차에 나누어 매주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이 태극기에 대해 더 잘 압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그린 태극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태극기에 관해 배운 것을 퀴즈로 내면 서로 맞추겠다고 너도나도 손을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색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틀에 갇혀 생각하지 않고, 따분한 정답이 아닌 해답과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의 제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을 깨기에 충분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태극기 그리기에서 건곤감리의 의미 중 물과 땅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색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은 하늘색, 땅은 황토색으로 칠했는데 한 아이가 칠하지 않은 그대로의 백색으로 해 놓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00야, 왜 물하고 땅 색깔을 안 칠했어?" 묻자, 이 재미있고 위트 있는 친구는 "물은 원래 색깔이 없고, 땅이 하얀 이유는 눈이 내린 거라 그런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웃으며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말 반성했습니다. 틀에 갇힌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잊어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증거를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애국자분들과 국가유공자분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잊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김상옥 의미가 없으면 쉽게 잊기 마련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왜 흔들었을까부터 모든 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의 역사를 알아가면 태극기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담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문화약자의 감성으로 전하는 하모니

실험지기
박진

실험실 한줄소개
당신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하는 감성이 지역사회 및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을 바꿀 수 있음



저는 의정부 시민이자 함께사람장애인문화예술모임의 리더로서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문화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 영감을 받아 실험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누리는 행위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 스스로 생산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어 그 첫 번째 단계로 노래를 배우고 불러 보았습니다.

참가자 6명 중 '문화약자의 감성으로 전하는 하모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가 매우 만족 2명, 만족한 편 2명, 보통 2명으로 나왔습니다. 참가자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설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가자 3명이 매우 그렇다, 3명은 보통으로 응답했습니다. 가장 만족한 회차로 2명이 8회차를 응답했고, 가장 불만족한 회차는 모두 달랐습니다.

에피소드라면 참가자 두 분이 회차가 지날수록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앉게 되었고, 매 회차마다 웃을 일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그중 제일 잘 웃는 참가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서 강사님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에 앉은 참가자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8회차 발표 때 실험지기와 참가자 전원이 파트를 정해서 노래를 부르고, 실험실 참가자 전원의 모습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놓은 '우리 함께라면'을 불렀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다섯 달 뒤엔 겨울일 것을 생각해서 '첫눈이 내려'를 신나게 부르며 끝을 맺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비롯해 저도 이 실험을 통해 장애가 있어도 노래를 좋아하고 듣고 부르며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목소리로 노래 멜로디와 노랫말에 따라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어도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과 언어장애가 없는 사람이 보조를 맞추고 합창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충분히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진 장애인들이 각자가 지니고 있는 감성을 노래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낭독을 통해 즐기는 연극

실험지기
이선휘

실험실 한줄소개
함께 희곡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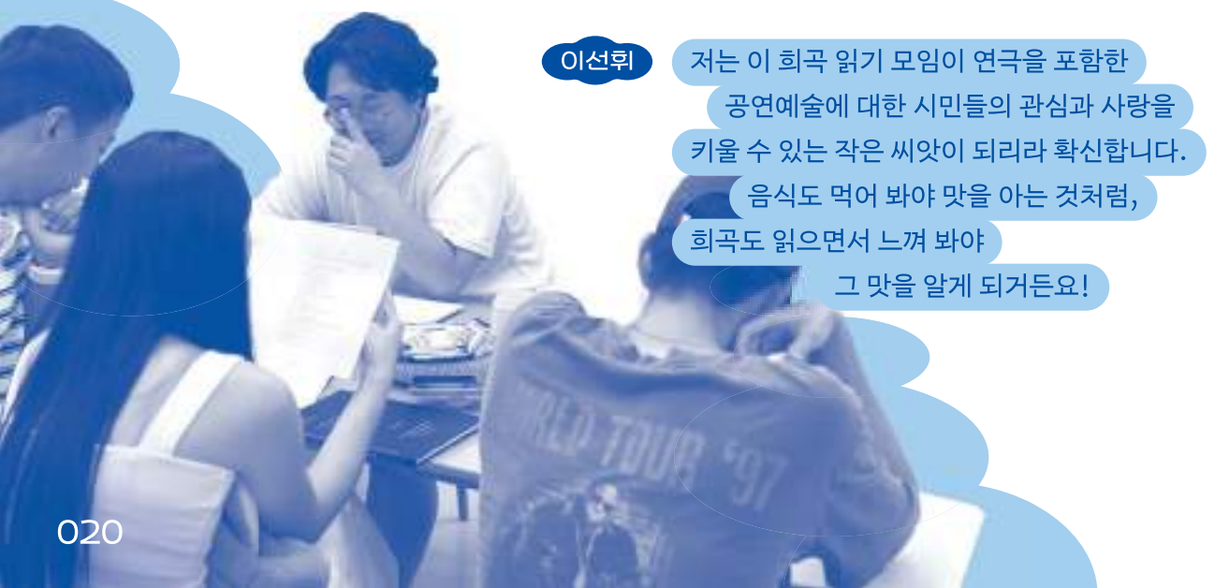
저는 의정부에 사는 배우이자, 소상공인인 이선휘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연극이 재밌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실험을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연극 공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연이 잘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객석이 가득 차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홍보나, 제가 참여한 공연의 인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는 '음악극 축제'까지 진행하는 '극'에 진심인 도시입니다. 저는 이와 함께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희곡을 읽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언어영역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직업이 배우인 사람과 함께 예술작품을 마음으로 느껴 보는 것에서 출발하는 과정으로 말입니다.

연극을 소재로 한 건, 저 자신이 연극을 하는 공연예술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의정부가 아직 '연극과 덜 친한' 도시라고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연극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접해 보지 않았던 분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도록 몸을 움직이지 않는 '낭독' 형식을 취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경험이 전무한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연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희곡 읽기의 수준이 기대치보다 훨씬 높아져서 저도 즐거웠고, 다들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희곡을 읽은 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치유의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참여자분들이 이전까지 삶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지하게 되고, 사회에 대해, 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지역을 기반으로 희곡 읽기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실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선휘
저는 이 희곡 읽기 모임이 연극을 포함한 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음식도 먹어 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희곡도 읽으면서 느껴 봐야 그 맛을 알게 되거든요!

화가의 사랑방 손님



정지혜
그림은 자신의 세계관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서로 소통하며 발견하는 재미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험지기
정지혜

실험실 한줄소개
화가의 작업실에서 일일 화가가 되어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저는 의정부 흥선동에 작업실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시민입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의 주제는 저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동네 안에서, 의정부 안에서, 그리고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자화상을 그려 보는 경험을 통해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도 예술을 통해 아름답게 채워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사랑방은 누구나 그림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간입니다. 흥선동에 위치한 그림정원화실은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실을 궁금해 하시는 주민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화실의 문턱을 낮추고, 그림이라는 예술 활동으로 서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화실이라는 공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누구나 화가가 될 수 있다는 홍보를 하였고, 혼자가 아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60~79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서로 인생을 나누고 예술에 대한 추구도 각별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장르와 아크릴물감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접목시켜 어렵지 않으면서도 작품성이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화실 앞 양말 부업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찾아오셔서 서로의 힘듦을 다독이며 그리고 색칠하는 본인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시다며 화가가 된 것 같다고 기뻐하시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 대표분과 오신 분은 그림은 소질도 없고 해 본 적도 없다고 하시더니 너무나 멋지게 채색을 하시고는 서로 엄지척을 하시며 뿌듯해 하시던 모습, 예쁘게 자신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염색해 본 적 없는데 이럴 때라도 머리색을 밝게 칠하고 싶다며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림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킹댄스 체험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실험지기
최동욱

실험실 한줄소개
브레이킹 댄스를 체험하고 참여자(직장인)들의 번아웃 극복과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변화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나 현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비보이 그룹 갬블러 크루에서 활동하며 많은 비보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브레이킹 댄서입니다. 저는 브레이킹이라는 장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왔으며, 브레이킹이란 장르를 통한 일반 시민들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회가 생겨 의정부시와 브레이킹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오픈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인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브레이킹을 접해 보니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실험실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대상을 직장인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브레이킹의 재미를 알려주고, 참여자들이 같이 춤을 추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랐습니다. 브레이킹 체험이 끝난 후, 참여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역시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짧은 시간 브레이킹을 체험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킹이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킹 체험 후 싸이퍼(단체로 원을 그려 한 명씩 나와 본인의 춤을 추는 시간) 시간을 가지며 체험을 통해 배운 춤과 본인이 출 수 있는 춤을 추며 개인의 자신감과 참여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싸이퍼를 하며 참여자들이 서로의 춤에 응원을 해 주었고,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 참여하지 않던 참여자도 싸이퍼에 참가하며 브레이킹으로 서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브레이킹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자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를 바랐습니다. 실험이 끝난 이후 참여자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 배운 춤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목표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최동욱 이 실험을 통해 브레이킹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직장인들이 브레이킹을 체험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지 실험하고 싶었어요.



순례주택 잡화점 in 의정boo



실험지기
최진선

실험실 한줄소개
걱정인형을 선물받거나 만듦으로써 인형에게 걱정을 주어 행복한 하루를 선물받는다

최진선 ‘황금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나누고,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툭 던졌을 때, 모두가 그날 하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요.

저는 의정부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저의 장점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지 마을에 가끔 오는 잡화점처럼, 군인이 기다리는 황금마차처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하루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순례 주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잡화점인데, 저도 그런 걸 꿈꾸며 실험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모티브는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이 집에서 뭐 하나 하면 여러 집에 나눠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저의 실험의 취지는 작은 선물로 행복해지는 하루입니다. 회룡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마크라메 걱정인형을 나누어 주며 아이들에게 걱정인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남는 키트는 모두 회룡초등학교 상담실에 기증했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걱정 없는 하루를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학년은 매듭법이 어려워 만들어진 키트 200개와 그 안에 달콤한 캔디 2개씩을 넣어 주고 인형의 의미가 담긴 설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었습니다. 200개는 고학년 아이들에게 DIY 키트로 나눔 하며, 영상을 같이 배부하면서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직접 만들기를 원하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해 한결태권도 공간을 빌려 20여 명의 아이들과 걱정인형을 만들며 함께 그 의미를 알아갔습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으며, 가방에는 걱정인형이 달려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까지 연락이 왔고,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혼자 키트를 만들던 저에게 지역 아이들의 어머님들은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 주시며 같이 키트 만들기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작은 인형 하나가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고, 하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보람된 실험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예쁜 글씨가 따라온다

실험지기
김혜미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읽을 책의 문구를 가지고 오면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저는 캘리그래피 글씨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의정부에서 30년 동안 살고 있는 평범한 의정부 시민입니다. 글씨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좋은 글을 읽고 이것을 예쁜 글씨로 승화시켰을 때 받는 감동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속에 품었던 문구를 글씨로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붓글씨가 서예와 관련이 있는지라 처음부터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싶었고,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독서를 통한 힐링을 찾는 분들이기에 글씨 또한 이분들께 힐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문구를 가지고 오시면 포스트잇에 문구를 적어 보드 판에 붙였고, 그 문구를 부채와 페이퍼 아트 엽서 중 원하는 곳에 적어 드렸습니다. 문구를 가지고 오시는 과정에서 출처가 어디인지도 묻고, 좋은 문구는 서로 공유하게 되어 글씨를 쓰는 입장이었던 저희 실험지기들도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글이 주는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이 주는 힘을 글씨로 풀어냅니다. 글을 여러 가지 글씨체를 통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힐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좋은 문구를 보고 감동과 힐링을 느끼고,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실험인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실험이 끝나고 난 뒤, 이런 좋은 행사인지 몰랐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의정부시에서 많이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고, 글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혜미

글이 주는 힘, 음악이 주는 힘이 있듯이
글씨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단단하게 세우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글씨를
통해서 얻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아이돌 모두 모여라! 스으파(스트릿 의정부 파이터)

실험지기
손재이

실험실 한줄소개
모두 모여 춤을 추며 그저 즐겨 보는 것

저는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Mnet 예능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보고 실험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차별하거나, 1등만이 완벽하다는 편견 속에서 자라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이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싫어서 등수에 얽매이지 않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머니, 2030 청년들과 할아버지까지 전 연령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프로그램의 계획과 달리 신청자가 별로 없었고, 구경해 주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배틀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으파'가 추구하는, 다 함께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향에 맞게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노래를 짧게 들은 후 손을 빨리 들어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낯선 분위기 속, 한두 명씩 노래를 맞추기 시작하며 즐겁고 편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있던 것만큼 노래는 동요부터 7080세대 노래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이었고,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을 들으며 참여자들 간 친밀감도 형성되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가며 점수의 배점도 점점 커졌습니다. 점수가 커짐에 따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친해진 참여자들은 서로 알려주고, 다른 참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함께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게임이 막바지에 이를 때쯤, 처음에 나오지 않았던 참여자들이 무대로 나와 춤을 추고 다 같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즐겼습니다. '스으파'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면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막막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 잘 해낸 것 같아 좋았습니다.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바뀐 방식이 오히려 '스으파'의 취지를 더욱 잘 살렸습니다. 처음에 춤을 추지 않았던 참여자들도 춤을 추며 마무리된 '스으파'는 잘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즐겁게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손재이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추고
무대에 서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좋아하기만 하지 재능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저
잘하기만을 중점으로 두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에 중점을 두길 원했어요.



의정부,
그 떨림과 살림

실험지기
손진실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떨림과 삶을
들어보고, 각자
자신이 생활하는
도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연희'로 공연과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실험지기 '콩'입니다. 장구, 북, 꽹과리, 징 연주자이며 요즘은 팀에서 징을 가장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의정부시 사회적기업이자 공연예술 단체인 살판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의정부가 주는 의미를 찾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어떤 이유가 그들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는지, 또 어떤 이유가 그들을 설레게 하는지 직접 물어 보는 실험입니다. 떨림은 '의정부의 무엇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어떤 사물이나 현상,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림은 '나는 왜 의정부에서 살고 있는가?'를 물어 보는 질문이기에 이 역시 현재의 현상이나 상태를 물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설문의 경우 최대한 어렵지 않으면서 '떨림과 살림'이라는 프로젝트의 키워드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공간 중 '아트볼 프로젝트'는 어린아이가 주로 방문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설문을 더 쉽게 하나로 바꾸는 등 변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판넬을 제작하고 의정부의 여러 권역에 설치했습니다. 공간에 3주 이상 자리를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대표님들께서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3주 뒤 설문을 마쳤고, 판넬을 모두 회수하면서 대표님들과 간단한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답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러 다양한 의견 수집을 위해 특정 예시를 주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이 세밀한 시선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추억과 미래가 사람들을 의정부에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실

예술가로 활동하는 저는 연주자와
관객의 관계로 시민분들과 만날 일이 많은데,
좀 더 광범위하게 시민분들을 만나
그들의 니즈를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고 싶었어요.

의정 To THE 부
땐스버스킹



안기현

현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인
댄스를 통해, 학업과 취업에 지친
청소년과 청년들이 거리공연으로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는 일탈을
제공하려 합니다!

실험지기
안기현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시 행복로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벌이는 댄스 버스킹

저는 무용예술을 하는 안기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춤을 마음껏 즐기기 위한 플랫폼으로써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예체능 교육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아 공연연출, 안무, 공연기획과 행사기획, 영상작업, 댄스 필름 제작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공교육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공연 기회와 직접적인 문화 참여가 한정적인 것이 아쉬웠고, 일 년에 한두 번 하게 되는 발표회도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하고 마는 것이 마치 꿈을 펼쳐 보지 못하고 휘발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지도할 경우, 공연할 기회가 생기면 퍼포머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힘을 발현하고 발돋움하는 모습을 봤던 터라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공연 기회가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이전, 대한민국 각 도시의 거리에는 춤, 노래, 랩 등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 활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쉽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이런 기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행복이 다시금 행복로를 활력 넘치게 채워주길 바랐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에 요청하여 각 동아리에 실험실 소식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 이후 각 동아리 SNS에 직접 접촉하여 섭외하는 등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그렇게 의정부 외에도 양주 등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두루 모여 네 개의 그룹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약 2주간 준비한 무대를 모자상 인근에서 약 30분간 거리 경연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청소년들과의 합동 공연에 첫 발걸음을 내디딜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준비해 준 친구들과 버스킹을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만 춤추던 친구들이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해 주어 매우 기뻤습니다. 저에게도 직접 공연예술에 뛰어드는 플레이어가 아닌, 버스킹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기획자로서 처음 나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파란 우체통

실험지기
이소희

실험실 한줄소개
디지털 세계에
지치고 일상에 지친
의정부 시민들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마음을
전하고 전달받는
메신저입니다

소통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우체통이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감성과 추억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20대에게는 빨간 우체통이 생소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아날로그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체통은 아니지만, 손 편지의 감성이라도 찾아 보고 싶었습니다.

'파란 우체통'은 직접 쓴 손 편지를 통해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공감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파란 우체통은 속마음을 익명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공간이며, 각자가 작성한 손 편지는 전달되지 않고 파란 우체통 안에 보관됩니다. 파란 우체통을 통해 시민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되찾고 속마음을 표현하며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부시 청년몰에 파란 우체통을 배치하고, 시민들이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란 우체통은 아날로그 감성이면 어떠한 내용이든 허용하며 익명 또는 실명으로 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란 우체통 설치 이후에는 매주 우편함을 확인하고 편지 내용을 검토하며, 동의를 얻은 내용의 편지는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 편지의 메시지와 감정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실험실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따뜻한 소통과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라며, 파란 우체통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파란 우체통이 의정부의 소통과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이소희

아날로그 메시지의 매력은
손글씨와 종이를 통해 직접 표현되는
따뜻한 감성과 진정성입니다.
디지털 메시지보다 더욱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소중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손으로 쓴 흔적들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아웃, in 의정부

실험지기
이윤정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내에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공유하기



개인적으로 3년간 아파서 사회생활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던 것들을 모두 그만두고 치병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잃게 되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공기나 여러 환경들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원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것이 몸에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순히 독소가 조금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도 나눠 보고, 제가 공부한 부분도 조금씩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걸 알리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의학에 관련된 인쇄물을 주고 의견을 나누는 강의식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 보니 그렇게 진행하면 분위기도 딱딱해지고 의견을 나누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해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강의식보다는 대화 형식을 택했고, '토론'이라는 단어도 어딘가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라 '수다'라는 컨셉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여자는 진행자 포함 총 4명이었습니다. 다 같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해소 루틴을 찾아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 해소할 의지도 크다 보니 다들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셨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얘기를 다 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키워드 카드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적으면서,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받는 스트레스들을 풀 수 있는 공통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하며 탐색해 본 것이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되어 뿌듯합니다.

이윤정

다들 스트레스를 안고 살지만
누군가에게 일일이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혼자 삭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의정부 포스트크로싱

실험지기
최윤지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내에서 익명으로 따뜻한 엽서를 주고 받아보자

저는 원래 의정부 사람이 아닌데, 대학교 때문에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말이 조금 직설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편지로 친구들과 대화를 잘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포스트크로싱(전 세계 회원들끼리 엽서를 서로 주고받는 온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최근 사회가 분업화, 개인화되면서 소속감과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진행되던 포스트크로싱의 규모를 축소해 의정부에만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손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향수와 유대감을 느끼는 따뜻한 경험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1명이 포스트크로싱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폼으로 응답을 제출하면 실험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실험키트 안에는 엽서와 우표, 저의 주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직접 익명의 누군가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수거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철저한 익명 시스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내에서 찍은 사진으로만 모집했고, 각자 몇 장씩 보내 주시다 보니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사진을 받았을 때는 너무 잘 찍은 사진들이 많아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자분들 중 8명을 선발했고, 엽서용 일러스트로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다들 너무 좋아하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후 제가 손 그림 느낌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실을 하면서 우체통에 대한 문제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체통이 길에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우체국 앞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체통 서비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윤지
글로 전하는 마음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낀 사람으로서, 의정부 사람들도 편지를 쓰며 이런 감정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익명 고민 우편함: 의情부



한우림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는 것을 '정(情)'이라고 해요. 의정부를 정 있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험지기
한우림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시민의 고민을 손 편지로 받고, 그 편지에 시민 우체부가 답장 편지를 보내는 프로젝트

저는 바쁘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과 더욱 친해지기 위해 잠깐 휴학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문화 기획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는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실험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제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20대 초반에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민들이 자꾸 생겨나서, 어딘가에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나만 방황하고 있을까.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사람들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이라는 장치를 넣었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사색해 볼 수 있도록 의정부정보도서관과 갤러리 카페에 우체통을 설치하여 2주 동안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모인 고민에 답장을 써 주실 답장 우체부는 7분을 모았고, 다행히도 한 분당 2통의 편지에 답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민 주제는 인간관계, 진로, 사랑, 가족관계, 학업, 우울증 등이 있었고 연령대도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했습니다. 각자 마음에 와닿고, 동일한 경험을 가진 고민에 답장을 쓰셨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어설픈 상담은 상처와 부담을 줄 수 있어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답장을 적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답장 우체부 3가지 답장 원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며 답장 우체부들은 한 자씩 답장을 적어나갔습니다. 답장 우체부들이 자신의 경험과 아픔을 서슴없이 나누어 주고, 하고 싶은 말을 가득 담아 여러 장의 답장을 쓰며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답장 우체부들이 있어 이 실험이 가능했습니다. 답장 우체부분들로부터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시민을 위로하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고민 편지와 답장 우체부 모임에서도 들었기에, 제가 예상한 정이 가득한 의정부에 한걸음 다가간 느낌이라 보람찼습니다.



음악으로 찾아가는 활력과 즐거움

실험지기
김금숙

실험실 한줄소개
하루하루 지루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음악으로 찾아가는 활력과 즐거움'으로 함께 노래 부르고 율동하며 웃음치료로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함 드리기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 4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와 웃음치료로 어르신들께 행복과 즐거움을 드리는 실험실을 기획했습니다.어르신들께 옛 추억의 노래를 따라 부를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악기 연주와 노래와 실버체조로 3번의 공연을 했고, 총 46명의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명의 선생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자원을 이용했습니다. 오카리나와 플룻 연주자는 콜라보 연주를, 노래 강사는 노래와 춤을, 웃음치료사는 실버체조를, 스마트폰 강사는 영상 만들기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신 장구와 민요팀도 참석해서 장구 공연과 민요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함께하니 더 풍성한 공연이 되었습니다.

해맑은요양원과 효실버카운티에서는 마이크를 드리면 노래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고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더 뿌듯했습니다. 녹양휴먼시아 경로당에서는 잠자고 있던 장구를 가져와서, 코로나19 이후 처음 친다며 노래에 맞춰 콜라보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무표정, 무관심, 웃음기 없는 표정에서 추억의 노래가 나오면 다 같이 따라 부르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덩달아 저희들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노래와 실버 체조도 모두 좋아하셨습니다. 또 오라는 말씀에 가을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금숙 하루하루 지루한 어르신들께 음악으로 찾아가는 활력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킹스보이; 매너가 소년을 만든다

실험지기
안예은

실험실 한줄소개
남자 청소년들과 함께 식사 매너를 지키며, 음식문화공간을 향유하는 식문화 체험

현재 의정부중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한 '킹스보이; 매너가 소년을 만든다'는 의정부중학교 남학생들과 함께 음식을 음미하고 식사 매너를 지키며 음식문화공간을 즐겨 보는 체험을 하는 실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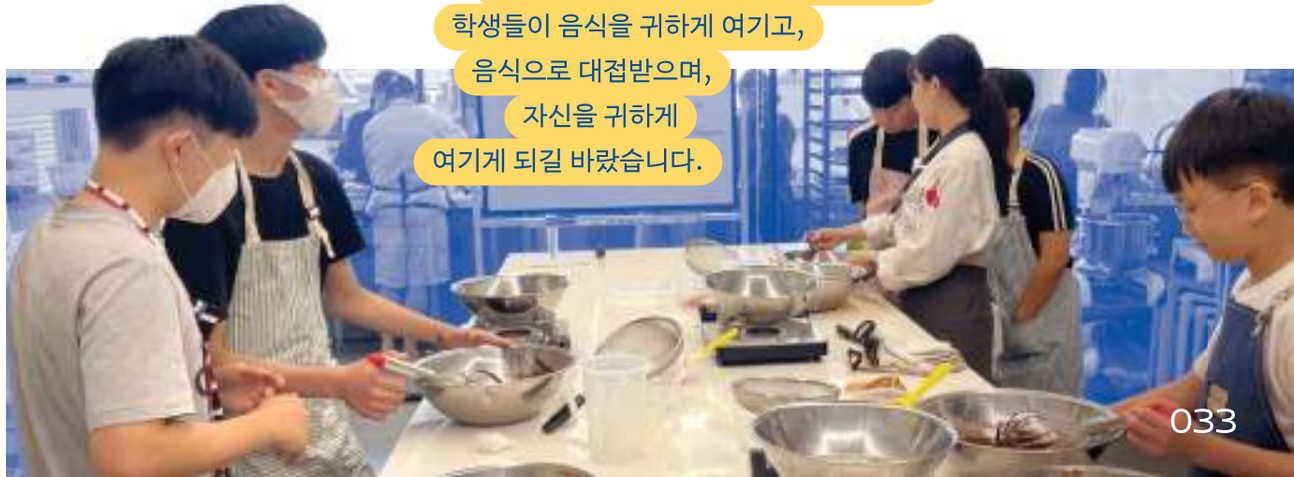
이 실험을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음식 문화와 관련된 글을 접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다양한 음식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성인이 되어 제 돈 주고 처음 가 보는 음식점에 갔을 때, 당황하고 주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서 빨리, 많이 먹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학생들에게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음식문화를 향유하는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40명의 신청 학생 중 5명을 선정했습니다. 장소는 의정부를 대표할 만한 양식, 중식, 일식 맛집을 일차적으로 추렸습니다. 단순히 맛만으로 고르지 않고 해당 공간의 분위기도 고려했습니다. 이곳을 차례로 방문하며 의정부의 음식문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각 식당의 특징과 음식문화 체험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학생들이 고급 식당에서 그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 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험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그동안 저에게 보여 준 모습 중에서 가장 점잖고 조용하게 음식을 음미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브이로그로 게시하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의정부의 다양한 식당에 대해 궁금해하고, 다른 방식의 음식 문화를 접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변한 건 저였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미숙하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에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맡은 바를 다하며, 의젓하게 실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안예은 학생들에게 그동안 학교에서 해주지 못했던 값비싼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음식으로 대접받으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길 바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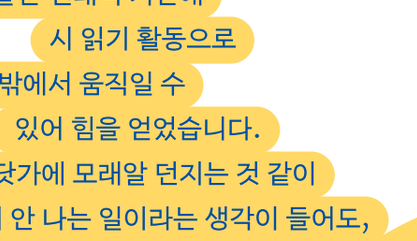
어르신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시詩 읽기

실험지기
이도영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서 소외된 계층과 한국 시 읽기

저는 의정부에서 시를 창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독거노인들의 자살 방지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부딪혀 본 어르신들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고령 여성들은 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외출도 못하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 소외감, 답답함 등으로 몸과 마음이 날로 힘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글 공부, 인지 프로그램, 게임 등을 해보던 와중에 100만원실험실을 알게 되어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만나기 위해 아파트 장날을 활용하였고, 장날은 대체로 고령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인정에도 찾아갔고, 아파트 단지 안에 벤치에서 쉬는 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정, 놀이터, 벤치 등은 좋은 배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격려도 받으면서 진행하는 데 속도감이 붙었습니다. 사이사이에 음료수와 과자와 짜장면을 출연료 대신 사 드리니 "이게 웬일이냐?"라며 서로 웃었고, 친구도 데려와도 되냐는 적극적인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때 감정 표현을 유도했더니 배꼽을 잡게 웃으셨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자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도 갔습니다. 의정부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구열이 큽니다. 한국어 수업 때 인형극도 해보고, 교구를 직접 만들어서 써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길이가 짧은 시 읽기가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 시를 읽자고 하면 "시가 뭐예요?" 하고 외국인들이 물어봅니다. "노랫말 같은 거야."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시를 읽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빨리 받아들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로 시작해서 외국인들과 어르신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이도영

우울한 팬데믹 기간에
시 읽기 활동으로
집 밖에서 움직일 수
있어 힘을 얻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 던지는 것 같이
티 안 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살아있는 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흥나는 우리요양원! "얼씨구 좋다~!"

실험지기
이미열

실험실 한줄소개
재능기부 예술인들이 모여 경로시설로 찾아가는 공연

사단법인한국경기소리보존회 의정부 지부장으로 의정부동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소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소리꾼 이미열입니다. 무형문화재 제31호 이수자로서, 우리의 경기민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라며 오늘도 장구 앞에 앉아있는 소리꾼입니다.

저에게는 일상이고 즐거운 문화 예술이 누구에게나 그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술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 분들이 그러했고, 그분들 중에서도 경로시설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공연장을 가는 일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연예술인들이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 무대를 열어, 익숙하게 계신 곳에서 편하게 문화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 드려 편하게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멋진 공연을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연은 민요와 한국무용, 트로트, 풀피리, 벨리댄스로 구성되어 있고, 한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한 시간가량 진행하면 목으로 내는 소리와 무용을 함께 하는 공연인 만큼 지치기도 마련인데, 관람객분들이 행복하게 즐겨주셔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오히려 한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공연하는 예술인들이나 진행을 도와주시는 의정부 시민 열다섯 분들이 모두 재능기부를 해주시면서 순수하고 진정한 열정으로 다섯 번의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진심 어린 응원을 하며 서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차례 공연을 하며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모두 하나 되어 함께 감동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 마주침을 하며 공연할 수 있다는 것에 서로에게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에는 약속이나 한 듯 "또 올 수 있나요? 꼭 와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음이 행복했습니다.

이미열

'이러한 공연을 기다리셨구나!
공연시설이 갖추어진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고,
마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흥겹게 즐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벌말마을축제

실험지기
목영대

실험실 한줄소개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마을축제

저는 우리동네협동조합으로 우리가치떡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선마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이 있어 꾸준히 마을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벌말마을축제는 벌말어린이공원 주변지역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등이 심해, 화합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방안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제의 행사나 공연은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평소 하던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청소년회관이나 학교 동아리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어른들 앞에서 뽐내기도 하고, 봉사단체에서는 각자 모여 연습한 것을 선보이며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벌말어린이공원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참여단체들은 축제를 공동으로 준비하기 전에는 서로 만나거나 사업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각 단체의 회원들이 평소의 배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각 단체의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계기로 후원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것이 마을 문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동네에서 서로 이웃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자연스럽게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영대
예전엔 마을잔치가 종종 있었지만, 주거 문화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이러한 문화나 행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말마을축제'는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이웃의 소중함과 마을의 따뜻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도네리딩

이지혜
모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애착이 가고 즐거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고, 평소 읽기 어려운 책, 접하지 않는 소설과 같은 다양한 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실험지기
이지혜

실험실 한줄소개
책도 읽고 좋은 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독서모임

저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도네리딩 실험지기 이지혜입니다. 평소 책을 읽고는 싶은데 마음만큼 쉽게 되지 않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책을 읽으려고 생각하던 중에, 책을 함께 읽는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참여비를 모아서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을 통해 모임을 꾸려 독서 습관을 정비하고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부와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참여자들과 함께 세 달간 12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이며, 도서 선택은 자유였습니다.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책을 읽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읽은 책을 정리하여 회원분들께 소개하고 발제한 질문으로 본인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부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회원분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부를 한다면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에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확장 워크숍에서 만난 분들에게 기부처를 여쭤 보던 중에 알게 된 청소년 재단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보호가 필요한 친구들이 오는 단체 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이유로 기부금이 타 기관보다는 적게 들어온다고 들었고, 그럴수록 더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 기부비와 100만원 실험비 일부를 모아 '십대지기' 기관에 기부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분들 중에서 "독서를 하면 기부가 되는 방식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라고 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모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린이
(등산하며 배우는 이야기)

실험지기
이효정

실험실 한줄소개
등산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실험

저는 주부이며, 조리사 일을 하는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등산을 시작했을 때, 한번은 정상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이 감동적일 정도로 멋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 뒤로도 굳이 정상이 아니더라도 산이 주는 즐거움과 산에서 볼 수 있는 풍경 때문에 등산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저 혼자가 아니라 동네 지인 한 분, 두 분씩 같이 시작했습니다. 같이 올라가던 친구와 올라가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 그 자체가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국한될 게 아니고, 주변 분들과 더 많이 등산을 다니며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의 문화를 건강하게 바꿔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몸이 먼저 느끼게 되고 정신적인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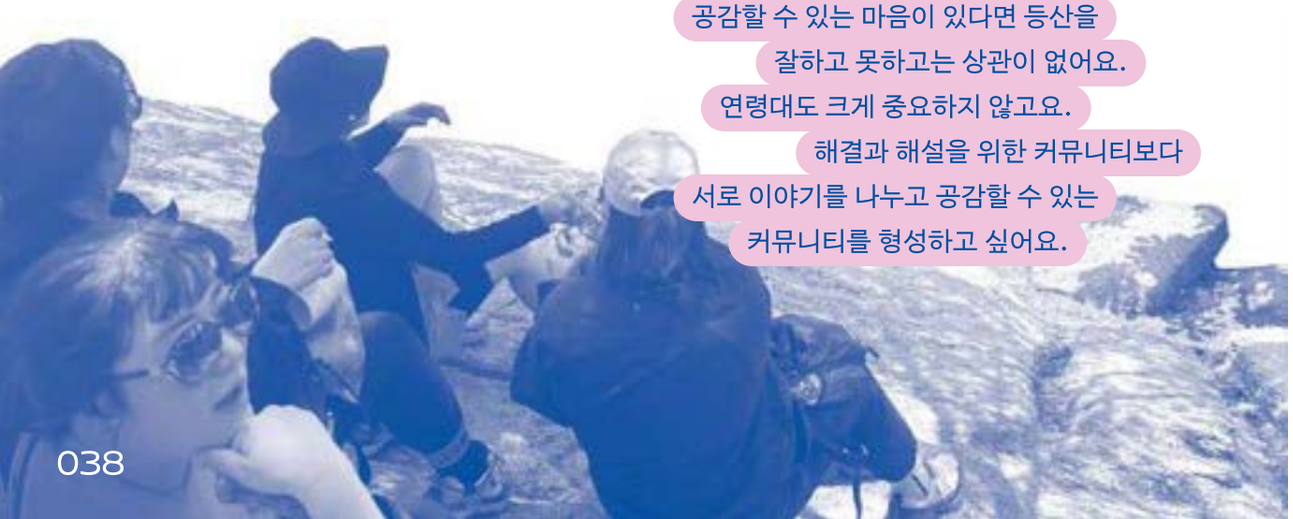
이 커뮤니티는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 혼자 올라가고 싶으면 나만의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가며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도시만 보다가 주위 자연환경도 볼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모르던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웃게 되고, 사소한 커피 한 잔도 나누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중랑천 플로깅 중에도 저희의 행동을 보고 동참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 두 명에서 시작된 등산이 실험실을 통해 지인의 지인으로 이어져 총 13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도시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도 문화가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주변 분들과 함께 등산하며 건강한 문화, 깨끗한 도시 만들기도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예술로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깨고, '이런 것도 문화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정

마음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등산을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연령대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해결과 해설을 위한 커뮤니티보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어요.



자기계발은 핑계고



임지선

재능도 교환하면 훨씬 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물건 교환하듯 가까운 곳의 이웃들과 서로
재능을 교환하면 상부상조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우리 동네 재능 품앗이!

실험지기
임지선

실험실 한줄소개
무엇이든 본인이
잘하는 것 가르쳐
주는 모임

저는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게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많은 청춘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했다가 안 맞을까 봐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찍먹'해 보자는 생각에서 기획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실은 아마추어들의 재능 교환소입니다. 실험실 이름도 일단 만나서 수다부터 떨어보자는 유튜브 '핑계고'처럼 일단 만나서 무언가를 해 보자는 생각에 지었습니다. 강사를 하면서 생산적인 모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모든 시간에 내 에너지를 100%씩 쓰면서 자기계발을 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하게 시작해 보는 취미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물건을 많이 거래하는데, 서로의 재능이나 기술이 필요할 때는 그때마다 배우러 가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각자가 아마추어더라도 서로의 재능을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장점은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배워서 제곱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험 참여자 모두가 배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본인의 분야 이외의 재능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색다른 재능을 체험하고 완성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무척 뿌듯하고 실험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계획에 없던 쫑파티와 또 실험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어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다회차 모이는 구성이다 보니 참여할수록 더 끈끈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圖時樂)



차진미 책은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운 가득하게 독서 활동을 즐기고, 마음을 치료할 수 있으면 그게 독서 테라피라고 생각해요.

실험지기
차진미

실험실 한줄소개
특별한 장소에서 책으로 소통하는 법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퇴근 후에 직장인들, 특히 워킹맘들이 책을 읽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은 '圖 그림 도', '時 때 시', '樂 즐길 락' 해서 '圖時樂 도시락'입니다. '그림 도'에는 서적이라는 뜻도 있어서, 말 그대로 책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책을 즐기기 위해 사서 커뮤니티로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과 총 2차시에 걸쳐 독서 테라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책은 도서관 사서들이 모여서 그런지 각자 원하는 책을 선정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감상평을 공유하고, 그 책을 모둠원끼리 나눠 보자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기록할 수 있는 패들렛 링크도 만들어서 읽은 책의 후기와 필사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워카페 마음꽃과 의정부바이브를 방문하며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장소에서 읽냐에 따라 책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소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1차시에는 마음꽃 카페에서 원예 테라피를 했습니다. 책을 읽고 식물을 심는 활동을 했는데, '숲속의 담'이라는 웹툰이 연상되면서 힐링되었습니다. 2차시에는 의정부바이브에서



플라워 북아트 테라피를 했습니다. 풍경화를 그려 보기도 하고, 꽃을 그려 보면서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책을 함께 읽어도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꾸밈없이 표현돼서 상당히 재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직업을 하다 보면 책이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책으로 승화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장소를 발견한 것도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의정부라는 지역에 살면서 딱딱함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육아와 가정에 지친 의정부 시민들도 우리가 발견한 공간에서 우리가 시도했던 테라피 활동을 해봄으로써 마음의 쉼이 느껴지길 바라봅니다.

서각예술의 대중화

실험지기
김태욱

실험실 한줄소개
서각 작품 제작 후 호원 직동근린공원에 전시, 시민들의 반응 실험하기



저는 대한민국서각대전 대상을 수상한 작가로, 한국서각협회 상임위원을 지내고 있으며 의정부 호원동에서 서각협회 의정부 지부 및 나무향기서각 연구소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서각이란 글(書)을 각인하다(刻)라는 의미로, 주로 목재를 파서 글자를 새기는 조각품을 의미합니다.

의정부에서 서각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전통 서각과 현대서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했고, 서각이란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시간을 만들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각 작품을 전시하면서 문화적인 소통을 하고, 서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서각예술로 의정부라는 도시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서각의 도시로 키워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원들과 작품에 대한 글과 디자인 등을 상의하며 글을 새기고 채색을 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동안 의정부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서각의 길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땀에 젖으면서도 회원들 모두 보람 있는 시간으로 즐거워하며 작품을 진열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내부 전시장이 아닌 외부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나무의 질감이나 글씨와 채색된 작품을 직접 만져 보며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 작가들의 마음을 읽어가며 한여름의 휴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이 설레고 즐거웠으며, 전시 공간인 직동근린공원을 찾아가 전시를 위한 구도를 살피는 시간도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작품을 직접 설치하던 날, 시민들의 호응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서각을 배워 보고 싶다고 하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서각 역사를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낯설어하는 시민들이 서각에 대해 물어 보며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의정부를 서각의 도시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희망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김태욱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글귀를 새기면, 결국 그 글귀는 마음에도 새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서각으로 인해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를 빛낸 100개의 명물송

실험지기
김한나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의 명물을
노래로 작곡하여
영상으로 소개하기



퓨전국악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나입니다. 제가 가진 역량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퓨전국악 장르로 의정부를 알리는 노래를 작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에 이사 온 지 5년이 되었지만 의정부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처음 100만원실험실 모집을 할 때, '아, 이거다. 이걸로 의정부에 대해 공부도 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정부를 노래로 소개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면서 의정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역사적 사실과 지역 정보들을 공부했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의 명물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가 지금과 다르게 6절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분들이 힘들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고, 노래에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아서 핵심을 추려 양을 줄였습니다. 지금은 '의정부를 빛낸 36개의 명물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사, 작곡은 제가 했고, 지인들을 통해 소금, 해금, 판소리 연주자와 녹음을 했습니다. 국악기만 리얼로 녹음하고, 다른 악기들은 미디로 작업했습니다. 연주자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녹음실에서 해금 연주자와 엔지니어가 "의정부가 이런 곳이구나.", "의정부에 이렇게 유명한 것이 많았구나.", "의정부에 대해 노래로 알게 되니 너무 재밌어요.", "노래 컨셉이 좋아요."라고 하실 때, 그리고 그분들이 노래를 흥얼거리실 때, 내가 사는 곳을 조금이라도 알린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래를 녹음할 때 프로 연주자들을 섭외하였기에 더 완성도 있게 작업물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녹음과 함께 영상에도 많은 정성을 들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뿌듯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김한나 의정부를 빛낸 36개의 명물송은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의정부에 처음 오신 분이나
거주자, 여행자 모두
의정부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노래로 알게 되는
참신한 도전입니다.

우리 동네의 특별한 씨네마쌀롱

실험지기
이경윤

실험실 한줄소개
매주 토요일 낮,
의정부 지하상가
문화공간에서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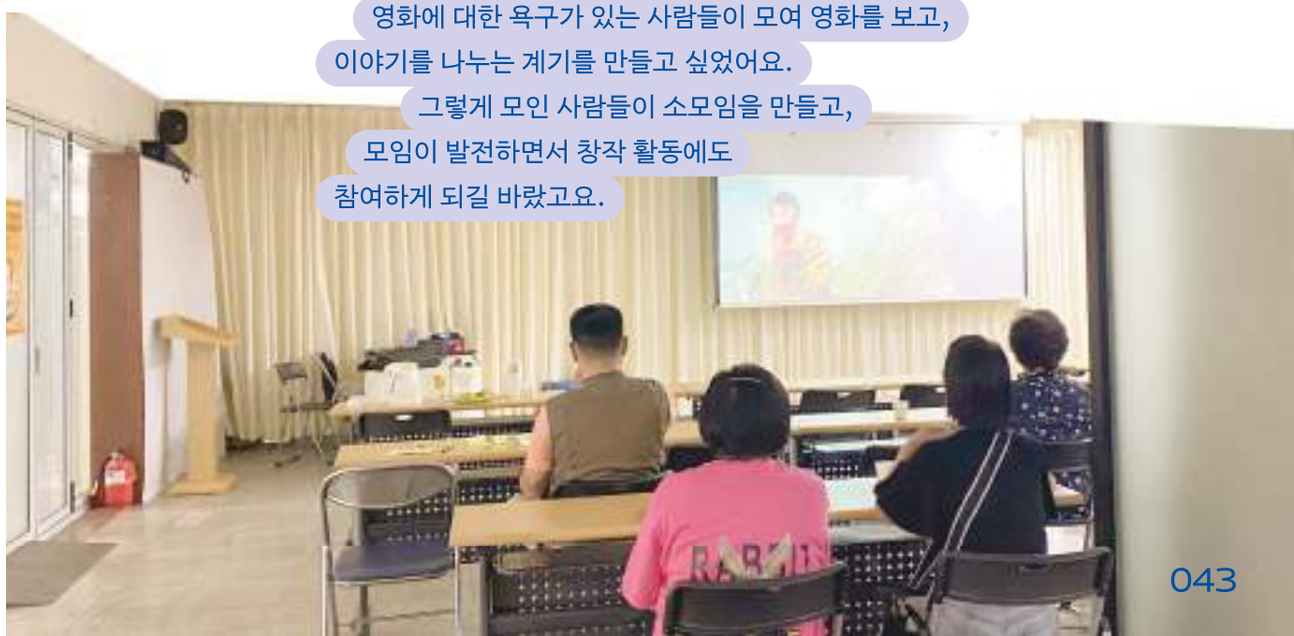
저는 70년대에 충무로에서 영화감독을 했던 원로 영화감독입니다. 대표작은 최무룡, 윤정희 주연의 영화 '초원의 빛'입니다. 이후 의정부에서 예총 영화인협회를 이끌어 왔으며, 연 1회 시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의정부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문화의 주요 장르인 '영화'의 활성화를 생각하면서 본 실험실을 기획했습니다.

영화는 인간, 윤리, 사회상과 생활상 등을 비추는 종합 예술입니다. 영화를 보는 소모임, 소그룹, 동아리,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 영화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것에서 본 실험실은 출발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적 수준의 예술성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고, 의정부에서도 영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영화인으로서, 더 많은 시민이 영화를 즐기고 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100만원실험실에 참여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국심을 상기시킬 만한 영화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덕혜옹주', '밀정', '영웅' 같은 영화를 골라 총 3차에 걸쳐 실험실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시기의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관점을 알 수 있었고, 역사의 한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씨네마 쌀롱을 다시 열게 된다면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해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실험실에 찾아온 관객은 거의 시니어 세대였고 두 번째 실험실에서는 의정부에서 제작된 단편영화 '새엄마의 눈물' 시사회도 함으로써 관련 관객들이 많이 와서 50여 명이 문화공간을 찾았습니다. 의정부에서 만든 영화라 그런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화 출연진들과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를 즐기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경윤 '우리 동네의 특별한 씨네마쌀롱'을 통해 의정부에서
영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소모임을 만들고,
모임이 발전하면서 창작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길 바랐고요.



의정부! 다 함께 시시 詩市 해!



이윤석

갤러리카페 다미아는
여러 모임을 많이 진행하는
공간이었지만, 한 번도 시를 쓰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시를 써 보고 전시하는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국어국문문예창작을 전공하신 이은영 강사님을 초빙했습니다. 편집 디자인을 이용해 참여자들의 시를 엽서로 제작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나도 시 한편 써 보고 싶다!'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의미 있는 실험이 되었습니다. 나이대는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에게 시를 가르쳐 주고, 서로 가까운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교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각자만의 개성이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가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참여자들이 각자의 시를 쓰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퇴고하며 이론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큰 배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시라는 매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실험지기
이윤석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곳곳에서 추억 속의 의정부, 지금의 의정부에 대해 시를 쓰고 만들어진 시를 전시하고 낭독한 뒤 엽서로 제작한다

저는 전시 기획을 하는 사람이고, 갤러리카페 다미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민락동에 자리 잡은 카페 다미아는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지금의 '우리 동네 소소한 예술공간'이라는 타이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있었던 추억, 의정부 특정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일화나 사소한 이야기를 시로 담아 보는 것을 보고 싶어 실험실을 기획했습니다. 지하철이나 의정부경전철에서 쉽게 시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를 직접 쓰는 시간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를 하는 기회까지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험명에는 의정부 시 '市'와 참여자들이 작성하는 시 '詩'의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월에 4번의 시 특강을 진행했고, 양질의 교육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동국대학교

올해 63년생 환갑, 동갑내기 의정부시도 63년생

실험지기
서영진

실험실 한줄소개
올해만 할 수 있는 실험! 의정부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의정부 시민들이 시에 전하는 환갑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아 본다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의정부를 좀 안다는 시민! 문화 관광 해설사 서영진입니다. 올해는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의정부시 60주년을 의정부에서 나고 자란 제가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 승격 60주년은 올해만 할 수 있는 주제니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의정부시 60주년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알리자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처음 100만원실험실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63년생에 한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인터뷰 대상자를 모으기 쉽지 않았고,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기억들이라 연세가 높으신 분들의 추억의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처음 축하 메시지 촬영을 기획했을 때 청년들, 노년층, 중장년층이 의정부에 바라는 것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의정부'가 뭐냐고 물어 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의정부가 조선시대 관청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지명을 얻게 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의정부 사람에게 의정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고개를 돌리고 대답을 회피하는 일 없이 의정부가 조선시대 관청 이름이라는 것이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의정부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서영진

올해는 시 승격 60주년이니까,
또 누군가 이런 비슷한 것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의정부의 시 승격 60주년을
축하한다는 것이 전해진다면, 기쁠 것 같아요.



로컬파이 레시피: 의정부를 새롭게 감각하는 법

실험지기
이규빈

실험실 한줄소개
‘나는 어떤 로컬 살이를 꿈꾸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재료 삼아 점토로 만들어 내는 파이입니다



81.54는 의정부 청년들이 모여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일 년에 두 권 로컬 매거진을 내고 있는데,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를 발견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정부를 기반으로 잡지를 만들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연결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지역에서 충족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로컬 라이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해 나가며 로컬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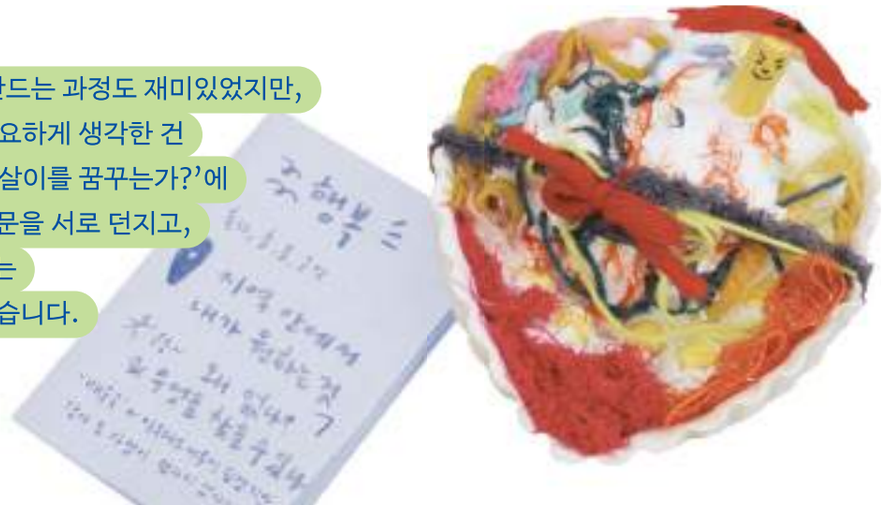
‘로컬파이 레시피’는 ‘나는 어떤 로컬 살이를 꿈꾸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재료 삼아 점토로 파이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정리된 생각을 파이에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파이 모양의 종이에 글을 적는 것은 생각보다 임팩트도 약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기획 과정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이름대로 진짜 파이를 직접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점토를 이용해서 진짜 같은 가짜 파이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나는 어떤 로컬 살이를 꿈꾸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 각도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재밌는 질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욕구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연결하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실험실을 기획하는 81.54 크루끼리 여러 차례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

81.54는 의정부에서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애쓰는 경험을 하는 그룹이고, 저마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멤버들을 연결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사는, 본인과 결이 맞는 동료나 이웃을 찾고 싶은 마음과, 본인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규빈

점토로 파이를 만드는 과정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나는 어떤 로컬 살이를 꿈꾸는가?’에
대한 질문을 서로 던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



afternoon 의정부

실험지기
임성우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시 내에서 베버리지, 식문화 공유 및 탐구

저는 의정부 토박이 임성우라고 합니다. 현재 서양 술집 ‘그누나네’라고 하는 다이닝 바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바텐더입니다. 지역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베버리지 문화와 식문화를 탐구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의 경우 bar 문화, 즉 칵테일이나 위스키와 같은 것에 시민들의 니즈가 있지만, 정작 서울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버리지 문화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술을 못 마시는 분들을 고려해 커피와 같이 추출과 블렌딩을 하는 분야로 접근했습니다. 주류에 국한되는 베버리지 문화가 아니라, 커피 및 디저트를 통해 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모카포트를 통해 갓 추출한 커피와 그날 만든 디저트로 다과회를 즐겼습니다.



지역 내에서 디테일한 식문화에 갈증이 있는 참여자분들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 곳을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많은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프라이빗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식문화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요식업 분야 동종·이종 간 사업자들의 경쟁이 아닌 상생의 문화 확산을 기대하며 지역 내 훌륭한 다과를 손수 공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직접 원두를 블렌딩하는 ‘만스에스테이트’의 원두와, 유튜브 및 지역 내에서 유명한 디저트 숍인 ‘은비스브레드’의 스콘을 준비하여 디테일한 베버리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업장에서 다루는 식문화가 아닌, ‘커피’와 ‘디저트’라는 다른 장르의 식문화를 공유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디테일한 기술을 요하는 장르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우

바텐더라는 직업에 종사하며
의정부 안에도 다양한 업장이 있고,
자신만의 특색을 담아 운영되는 곳들을
발굴해 공유하고 싶었어요.

의정부시의 메타버스 이주를 위한 준비 프로젝트

실험지기
최인종

실험실 한줄소개
UEFN을 이용한 메타버스 의정부시 건설을 위한 프리뷰 & 준비작업

저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그래픽 등을 만들고, 사회 정치, 문화, 스포츠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의정부 시민입니다.

의정부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의정부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본연의 문화,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반가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내 고장과 개인의 상호적 발전과 상상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면서, 그간 IT 문화 예술 관련 작업을 해 오던 제가 저만의 달란트를 발휘하여 내 고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타버스 의정부는 만화, 애니메이션 작품의 통합 세계관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이 첫발이었습니다. UEFN(Unreal Editor for Fortnite)이란 툴로 제작을 하는데, 이 툴은 코딩을 다룰 줄 몰라도 게임 등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편리한 툴입니다. UEFN은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도시의 상태를 서버에 바로 올려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100만원실험실 도중 이 툴이 출시되었는데, 7월 17일 제가 만든 메타버스를 퍼블리싱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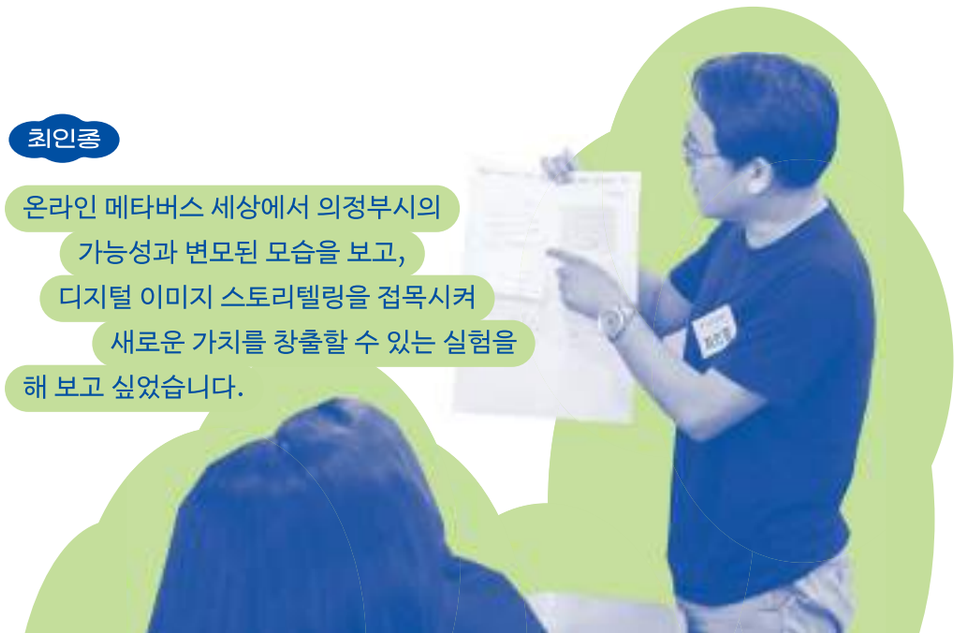


자격도 얻어서 이제 아무런 제한과 장벽 없이 메타버스 의정부를 오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의정부는 저의 애니메이션, 웹툰 등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데, 작품을 통해 본 곳을 독자가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고 플레이해 볼 수 있다는 데 참신한 소구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멀티유징 콘텐츠는 없었기에 빨리 실행해 보고 싶습니다.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을 알아가며 여러 이야기들을 모으고, 엮고, 변형하고,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로컬 크리에이터'란 나만의 직업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인종

온라인 메타버스 세상에서 의정부시의 가능성과 변모된 모습을 보고, 디지털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험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알록달록 의정부 동네 색깔들

실험지기
최희선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의 모든 동네 골목길을 다니며 의정부만의 색을 담는 실험

저는 좋아하는 장소들을 다니고 사진 찍으며 디자인 공부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의정부를 떠올리면 의정부역의 큰 번화가와 유명 체인점들, 그리고 특색 있는 도서관 등이 생각나지만, 다른 동네에 대한 것들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만이 갖고 있는 작고 주목받지 못하지만, 빛나는 동네의 작은 골목, 장소 등을 기록하며 그 동네만의 분위기와 향기를 남기고자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컬러북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골목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동네 이야기를 들으며 의정부 동네별 대표 컬러를 추출해 컬러북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한 동네 당 사진을 100장 정도 찍으면 그 동네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진 4장 정도를 다시 선정합니다. 사진은 여러 개의 다양하고 전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그중에서 동네를 가장 대표할 만한 컬러를 추출하고, 색과 사진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색깔을 조정해 나갑니다.

실험을 통해 의정부의 작은 곳들은 활기를 띠고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의정부 모든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내가 이런 특색 있고 분위기 있는 동네에 살고 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느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골목 곳곳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할 때, 시선을 바닥과 하늘에 두며 평소에 보지 못한 작은 것들을 보려 했습니다. 굽이진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본 작고 소소한 것들과 동네들은 이미 활기차고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 발견한 작고 귀여운 벽화들, 아기자기한 꽃들과 개성 있는 대문들을 볼 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의정부에 오랫동안 살면서 저 또한 우리 동네를 시시하고 재미없게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동네에 자주 가는 곳들이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원, 골목길들을 다니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더 다채롭게 보이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책을 다 만든 후엔 의정부가 더욱 알록달록하고 재미있게 느껴져서 좋아졌던 실험이었습니다.

최희선

완성된 컬러북을 보셨을 때 '우리 동네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의정부에도 이런 장소들이 있었구나'를 느끼고,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미끄러져야 달릴 수 있어

실험지기
김희원

실험실 한줄소개
미끄러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나 계기가 됐던 경험과 자신의 두려움, 고민을 공유하고, 스케이트 체험을 통해 그 전과 후의 변화를 공유하는 실험이다



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끄러지는 것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라는 생각에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아프지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제가 좋아하는 스케이트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케이트도 처음 시작하면 많이 미끄러지고 다치지만, 그로 인해 다시 달릴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자그마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재밌고 가볍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케이트를 의정부 시민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의정부 실내빙상장 내에 위치한 매점에서 간식을 먹으며 참여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본 후기부터 전공이나 MBTI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재밌게 미끄러진 경험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미끄러져 보는 경험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경험, 창업에 실패한 경험, 면접장을 착각해서 잘못 찾아가 아예 면접 기회조차 없었던 경험, 회사에서 미끄러진 경험 등 각자의 사연은 다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참여자들이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있었기에 대화가 한층 더 재미있었습니다. 대화를 한 후에는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더 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스케이트를 타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고, 스케이트를 타본 분들도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서로 붙잡아주고 같이 웃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미끄러지는 경험도 함께하면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김희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 목표에서 미끄러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끄러졌다'라는 문구가 긍정적인 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ifragile(자일) 의정부텃밭

실험지기
이규헌

실험실 한줄소개
자일동 의정부 도시텃밭에서 일일 도시텃밭을 체험하고, 도시텃밭 노하우를 함께 배운 뒤 수확물을 활용하여 참여자들과 건강한 식사를 함께한다

저는 의정부에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작년에 베란다 텃밭을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올해 의정부 자일동 도시텃밭에 도전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텃밭의 특성상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관심을 가지면서도 망설이고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텃밭'이라고 하면 도시에서는 접하기 힘들다고 느끼거나, 특히 청년층에게는 먼 이야기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경험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텃밭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텃밭을 운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채식이나 건강한 먹거리, 식재료들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보았으나, 쇼핑을 하면 식재료가 남고 채식 식당이나 건강한 메뉴를 만드는 식당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텃밭을 가꾸고, 청년층의 텃밭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자일동에 있는 도시텃밭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1회차 참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 신청을 하신 분이었는데, 1회차 텃밭에서 수확해 가신 바질과 상추로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2회차 때 주변에 즐겁게 공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텃밭에 대한 일상의 고민과 궁금증으로 실험을 시작했는데, 프로그램에서 처음 본 누군가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작게나마 주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반려 식물이나 텃밭을 하나쯤은, 혹은 한 번쯤 가져 보는 것도 문화도시가 가지는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텃밭을 통해 생활습관의 변화, 다양한 식문화, 취미, 힐링 등 여러 효과와 재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흙 한 번 밟아 보기도 힘든 요즘이지만, 다른 분들도 텃밭을 통해 흙을 직접 만져보고 작지만 즐거운 삶의 변화를 느끼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보길 바랍니다.

이규헌 텃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높아 행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함께 4평의 텃밭을 함께 가꾸고 건강한 농작물을 함께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청년예술살롱 야옹 野雍



천지연

의정부 예술가 청년들이 서로의 멘토가 되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예술을 나누고 소통하여
청년 소외, 고독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험지기
천지연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자칭
청년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저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자신을 예술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본업이 예술가는 아니지만 생업을 따로 하면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일상툰도 올리고 있고, 의정부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의정부로 오기 전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1인 가구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항상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로 오면서 의정부시 청년센터에서 연결된 인연들도 생기고, 이렇게 100만원실험실을 진행하면서 커뮤니티도 만들게 되어, 제가 알게 된 네트워크의 즐거움을 저와 같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의정부 자칭 청년예술가들과,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싶어 하는 이들과 원데이클래스 등으로 재능을 나누고 청년 소외를 방지하고 싶습니다.



전업 예술인이라기보다는 학생, 직장인,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인플루언서, 사업가, 블로거 등 다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가르쳐 주고, 함께 해 보면서 소통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을 좋아하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모임이나 블로그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했고, 딥펜이나 드로잉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창할 것 없이,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소통했습니다.

예술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지향점도 각자 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 주고 계속 바라봐 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 실험의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취미를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예술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재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L!ttle Need!e Project : 쪼끄만 바늘 프로젝트

실험지기
김수지

실험실 한줄소개
오래 입는 것이
지속 가능한 패션!
사고팔지 않고
교환하여 의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요!

저는 의정부에서 기후 위기와 동물권에 대해 알리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복종 먼지들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패션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의정부에서 버려지는 옷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의정부 인구수에 대입해 보면 약 1,300만kg이 의정부에서 버려지는 셈인데, 저희는 빠르게 바뀌는 유행 속,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화에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옷을 오래 입고, 고쳐 입고, 바꿔 입는 것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를 알리는 일이 도시에 필요하다고 느껴 이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사고팔지 않고 교환하여 새로운 옷을 얻는 의류 소비의 장, '21%파티 : 이웃집 옷장'을 열어 의정부에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실험하고, 패스트패션의 문제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이웃들의 옷장에 잠들어 있는 옷들을 꺼내어 교환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17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안 입는 옷을 서로 바꿔 입어 옷의 생명을 이어가는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총 67개의 참여 물품이 있었고 48개의 물품이 교환되었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새로운 의류 소비의 장이 열리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고, 의생활 속 제로 웨이스트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개 수선 워크숍에는 7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유로 못 입던 옷을 새로이 바꾸어 입게 되었고, 만족스러운 반응으로 뜨개 모임까지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 거창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잘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파티라는 방법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의생활'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1%파티'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김수지

지속 가능한 패션이란
오래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고
오래 입는 방법으로
지구를 같이 지켜 보는 게 어떨까요?

일회용 컵 업싸이클링 화분으로 변신!!!

실험지기
목지연

실험실 한줄소개
쉽게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나 화분이 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나만의 식물을 심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부에 이사온 지 3년 차이며,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버려지는 물건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습니다. 요새 점심으로 라면을 먹더라도 커피는 꼭 마시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넘치는 플라스틱 컵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여 일회용 컵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에 함께하는 시민을 쉽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 2, 3회차에 걸쳐 총 200개의 화분 심기를 완료했습니다. 2회차 때는 영희책방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앞서 아이들에게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간단하게 일상의 생활 폐기물에 디자인을 가미한 뒤 재가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체험 준비물로 아이들 앞에 놓인 일회용 컵은 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가져온 컵이었습니다. 컵에 심을 식물은 '호야'와 '아이비'였습니다. 아이들은 식물에 '은하수', '박박이', '채발이',



'야채호', '쑥쑥이', '새싹이', '야호' 등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흙을 접할 기회나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흙을 먼저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식물에 애칭을 붙여줌으로써 반려 식물로 함께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실험이 작게나마 시작점이 되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안 썼으면 좋겠고, 일회용품을 쓰더라도 버리지 않고 쓰임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지연
요즘 지구온난화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시대입니다.
버려지는 컵이나 재활용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커피박 환전소

실험지기
윤미경

실험실 한줄소개
99.8% 버려지는 커피박을 순환자원으로 업사이클링해서 커피박환전소를 만들어 키링 또는 점토로 나눠주며 시민들의 인식 제고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알아보는 실험

저는 의정부에서 친환경 강의를 하고 있는 환경 강사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환경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해 왔는데, 커피박 클레이를 만드는 자격증 과정을 배우게 되면서 '커피박 환전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는 커피박 환전소가 있는데 의정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박 클레이 1호 강사로서 이번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커피박 환전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커피 소비율이 매우 높아서 카페에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많은데,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소각 또는 매립이 되면 메탄가스가 많이 생겨 환경 문제가 됩니다. 커피 찌꺼기는 버려지기엔 깨끗한 물질이라 커피박 클레이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버려지는 커피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커피 한 잔에도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의식 있는 의정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커피박 환전소는 '조커피', '카페닮' 두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 작업실로 가져가면 기계로 커피 클레이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커피박에 물과 다른 첨가물을 넣어 기계에서 가래떡처럼 반죽을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쿠키 틀로 찍어내어 키링을 만들거나 연필심을 박아서 커피박 연필로 만듭니다. 다 만들어진 완성품을 다시 카페로 갖다 드리면,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커피박 키링에 색칠하고 꾸미는 활동을 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커피박 환전소에서 2주일도 안 돼서 100개의 재료가 동이 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커피박 환전소를 운영해 주신 카페 사장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시민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차후 더 다양한 제작과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윤미경
내가 버린 커피박은
내가 책임진다!
커피박을 가져오면
커피 점토 또는 커피 연필로
바꿔드립니다.



쓰레기 고민(고산-민락) 타파

실험지기
이나래

실험실 한줄소개
'스마트 크린 의정부' 앱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 쓰레기 퇴치하기



저는 오랫동안 의정부 시민으로 살았고, 이번에 고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된 평범한 시민입니다. 고산동으로 새롭게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사할 지역의 동네가 공사현장으로 인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크린 의정부'라는 앱을 100만원실험실을 같이 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앱은 시민이 쓰레기가 버려진 곳을 신고하면 의정부시 담당 부서, 청소업체 등에 연결되어 수거까지 4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좋은 앱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함께 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던 지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곳에 쓰레기통이 설치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방송이 생긴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실천해 보고자 했습니다.

앱을 사용해서 제가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고, 신고한 내용을 지역 카페에 올려서 이 부분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 버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직접 실천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앱을 실제로 설치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민락동 상가 단지와 고산 중심상가에 부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앱이 있으니 활용해 달라고 홍보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두 명이서 했던 신고 활동이 몇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였습니다. 이게 될까, 초라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진행했던 꾸준한 신고와 홍보 활동으로 앱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앱에서 신고 활동을 살펴볼 때, 100만원실험실 활동 이후 고산과 민락의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 뿌듯했습니다.

이나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꾸준히 신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런 변화된 한두 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송산사지를 지켜라

실험지기
장정화

실험실 한줄소개
송산사지에서 폐현수막으로 나만의 가방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저는 서울에서의 오랜 회사 생활을 정리하며 의정부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연경관이 좋고 녹지 공간이 풍부한 의정부가 좋았고, 집 앞에 송산사지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회사 출근 전에 아침 운동을 다니며 보이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원과 거리가 깨끗해지니 매번 줍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따라나섰습니다. 저와 같이 다니다 보니 어느덧 아들의 손에도 쓰레기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해 보더니 이제는 아들이 먼저 쓰레기를 보면 줍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렸을 때 쓰레기를 줍는 경험을 해 보면 최소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송산사지에서 아이들과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폐현수막이 가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재활용의 개념을 알려주고 쓰레기를 줍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으니까 꼭 유아들과 해 보고 싶었습니다. 플로깅백, 집게,



선물 등은 40개씩 준비했으며 쓰레기를 5개 이상 주워오면 제비뽑기를 해서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 2, 3등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큰 장난감을 준비했고, 4등은 모기퇴치 팔찌, 5등은 불빛 새총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줍는 경험을 계속해 보라는 의미로 자신이 썼던 집게와 플로깅백을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홍보하지 않아도 큰 장난감 선물을 보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고, 선물을 타려고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2~3시간으로 기획한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동이 나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진행하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장정화
저희는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요. 쓰레기를 주워 자연이 깨끗해진다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기준이 자리 잡기 바랍니다.



기후미식
‘비건배달의 민족’

실험지기
정희성

실험실 한줄소개
육식이 기후 위기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며
직접 만든 비건 요리를
배달한다



저는 의정부에 거주하며 비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희성입니다. 환경운동 단체 ‘의정부 기후 길라잡이’, ‘의정부 비건 네트워크’에서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 비건 동물복지, 기후 위기 등에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축산업에서의 동물복지와 관련한 문제에 안타까운 부분을 인식하게 되어 100만원실험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푸드 시스템의 50%가 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비건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면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건 배달의 민족’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건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청자들에게 배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받았고, 의정부 내 커뮤니티와 자원순환 단체, 환경단체 시민활동가들에게 1순위로 알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문 배달이 아니고 직접 자가용으로 배달을 하다 보니 많은 지역에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장암동, 신곡동, 호원동, 의정부동 네 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두 달에 걸쳐 4회차로 비건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메뉴는 감자 파스타, 샐러드, 알배추 찜, 퓨전 두부전 등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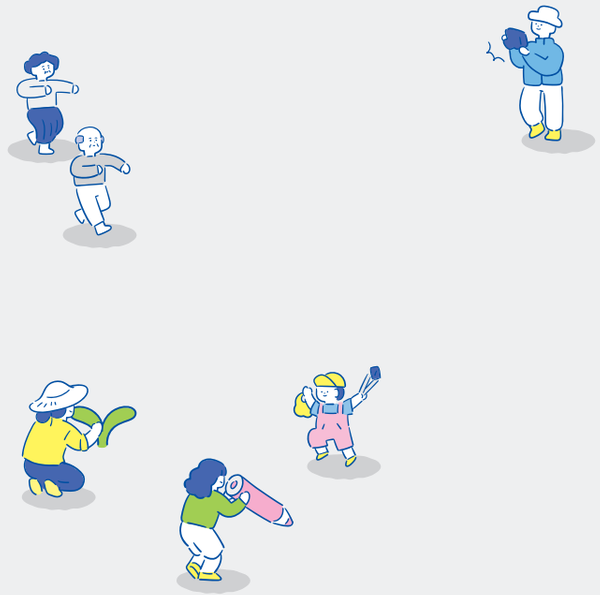
구글폼에 피드백 문항을 넣어놨는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건식이라는 것에 대해 편견이 있었는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은 의견들이 들어오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보다는 비건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는 데에 더 주력했는데 그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비건식 네트워킹(비건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몇 분 정도는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은 했었는데 축산업이 탄소 배출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성

10년 요리 경력과 비건의 삶을
살고 있는 제가 도시락을 통해
비건의 의미도 알리고,

비건 음식이 맛있고 의미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팬과 국자를 들었습니다.



상반기
END

1	문병식	어서와! 의정부는 처음이지?	062
	주지희	반나절 마을여행 in 의정부	063
2	고선아	책 없는 생활 영어	064
	고태화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자존감 뿜뿜!!! 의욕 뿜뿜!!!	065
	김은경	라인댄스의 생활화	066
	박소정	NO밀가루 NO설탕 건강 디저트 만들기	067
	이선재	직딩놀이터	068
	최동혁	의정부 직장인, 술 대신 춤은 어때?	069
	홍성은	패턴아트 클럽	070
3	강명지	의정부 산책 도서관	071
	강민지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북토크 서비스 '소피(Sophy)'	072
	김서현	Control+c Control+v 카페에 책을 입히다	073
	이난영	내 휴대폰 어디갔지? (휴대폰 없이 살아보기)	074
4	강서연	어르신 인간극장: 노인이 청년에게	075
	권기연	너의 이름과 의미를 불러줄게	076
	길최민서	U토피아(청년 퀴어비건프렌들리 네트워킹 파티)	077
	김은진	단짝	078
	박은실	두껍아, 작품줄게 추억다오!	079
	신미희	은하수다방 - 그때 그 오빠	080
	윤선미	나무랑	081
	조호영	의정부에서의 글로벌한 한가WE	082
	주경애	중장년들의 감성을 만져주자!	083
	최현주	얼씨구 의정부! 절씨구 우리들!	084
5	권재연	나에게 주는 특별한 아침	085
	김동희	아침을 여는 엄마들의 미술놀이	086
	김혜진	동네 주민의 성장을 돕는 경제인 모임	087
	이종민	MZ 뒤에 꼰대 앞에 '낀대'	088
	이평원	의정부 시민운동단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계획하기	089
	주진희	쿠킹하는 작은 도서관 '내가 만든 밀키트'	090
	한경희	우리 동네 구석구석 알아가는 재미	091
	허정욱	한 판 뜰까요?	092
6	강신아	의정부 人의 무한한 우주를 담다_전각	093
	김기묘	가슴으로 노래하는 애송시 한편 '행복을 담다'	094
	김해린	'나' 들여다보기	095
	서수연	중랑천과 노래를 잇다(중랑천go 노래go)	096
	안지현	필름 카메라로 바라본 의정부	097
	이 홍	안녕? 백영수미술관!(백영수1922 확장판)	098
	전규민	찍고 찍다 : 사진과 글로 의정부를 담아내다	099
	정지윤	<나의 감정> 참여형 전시회	100
	차준호	의정부 굿스팟 인생 네컷! 다큐에 담다	101
	추아영	둥근 평화의 춤, 써클댄스	102
7	김영훈	너도나도 의정부 홍보대사	103
	백유진	43년 역사 '노성야학' 20세기 역사앨범을 복원하다!!!	104
	송재용	의정부뽕 프로젝트	105
	이근호	의정부 졸업 사진 축제	106
	김현아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청룡마을 사진 전시회	107
8	이은비	숏폼으로 사귀는 의정부 친구, 숏폼으로 만나는 의정부 명소	108
9	송은영	숲을 읽어주는 아빠	109
	이예진	명절보자기 리사이클링	110

하반기 100만원실험실

1 관광·탐방

2 문화 예술교육

3 문화 이벤트

4 세대공감

5 주민 공동체

6 지역예술

7 지역자원

8 청년

9 환경

○ 실험지기의 결과보고서와 문화도시 에디터의 기사를 편집한 글입니다.

○ 문화도시 에디터 기사 전문은 QR코드를 확인해주세요.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 실험실

어서와!
의정부는 처음이지?

실험지기
문병식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의 명소를
소개하여 의정부
여행 활성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최근 주말에 서울 근교 여행이나 경기도 여행 외에도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의 경우 소개가 없는 것이 다소 아쉬웠고, 평소 사람들이 광장시장을 많이 찾는 것처럼 의정부 제일시장도 좋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의정부를 알려서 많은 분들을 의정부로 여행을 오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타지인을 의정부로 초대해 당일 여행을 하는 실험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제가 의정부의 가이드를 자청해 주말마다 타지에 사는 지인을 초대하고, 의정부를 여섯 번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부 하면 기존에 떠오르던 부대찌개, 미군부대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려 타 지역에 없는 의정부음악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 백영수미술관을 소개하고, 역사 관련된 신숙주 선생 묘, 송산사지, 정문부 장군 묘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의정부' 하면 다른 것이 떠오르게 하자는 스스로의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먼 길을 와주시는 만큼 참여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올 경우 부모와 아이들 모두 만족할 만한 루트로 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의정부천문대와 의정부음악도서관을 좋아했고, 맘껏 뛰어놀 수 있었던 신숙주 선생 묘와 맛있는 식사 시간을 좋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를 알리려고 시작했습니다. 알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정부를 몰랐던 사람들이 의정부를 알아가고, "오늘 여행 즐거웠다. 다음에 또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말을 해주었을 때 보람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공유한 SNS 추억을 누군가가 또 보고 방문할 거라 생각합니다.



문병식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의정부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정부로 여행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마을여행
in 의정부



주지희
의정부에 내가 몰랐던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는 것과 의정부 시민을 비롯해서
타 지역 시민들도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장소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실험지기
주지희

실험실 한줄소개
반나절 동안
의정부 13개 동 중
마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 소개하기

유아교육 관련 일과 학업을 25년 넘게 해 왔고,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문화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는 행위 중 하나가 '여행하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여행 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충전됩니다. 여행이 또다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사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마을 여행을 착안했습니다. 의정부의 숨겨진 명소나 장소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부라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자 '반나절 마을여행 in 의정부'라는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갈 장소들을 선정해서 체험한 뒤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의정부 전체뿐만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여행할 수 있도록 동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원, 도서관, 노포 음식점, 핫플카페, 역사유적, 미술관, 불교 사찰, 성당, 문화페스티벌 등 의정부 내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소개하며 지역자원을 풍성히 활용하였습니다.

의정부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정문부 장군'이 인상적이었고 부대찌개를 넘어서는 다양한 문화자산에 대한 소개와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산사지근린공원과 그 옆의 의정부미술도서관 등 훌륭한 문화공간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계 박세당 선생이 의정부에 살았다는 것과 신숙주 선생 묘가 고산동에 있다는 재밌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의정부 실내빙상장과 의정부컬링경기장도 처음 가봤는데 시설이 훌륭해서 좋았습니다. 백영수 화백의 실제 그림을 처음 접했는데 너무 훌륭해서 놀랐고, 미술관도 너무 예뻐서 의정부 건축물 소개 여행 코스에 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의정부에 거주했는데 사실 그동안 의정부를 그저 사는 곳, 잠자는 곳으로만 생각했지, 의정부에 어떤 명소가 있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번 실험을 기획하고 장소를 선정하면서 의정부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고 숨겨진 좋은 장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 없는 생활 영어

실험지기
고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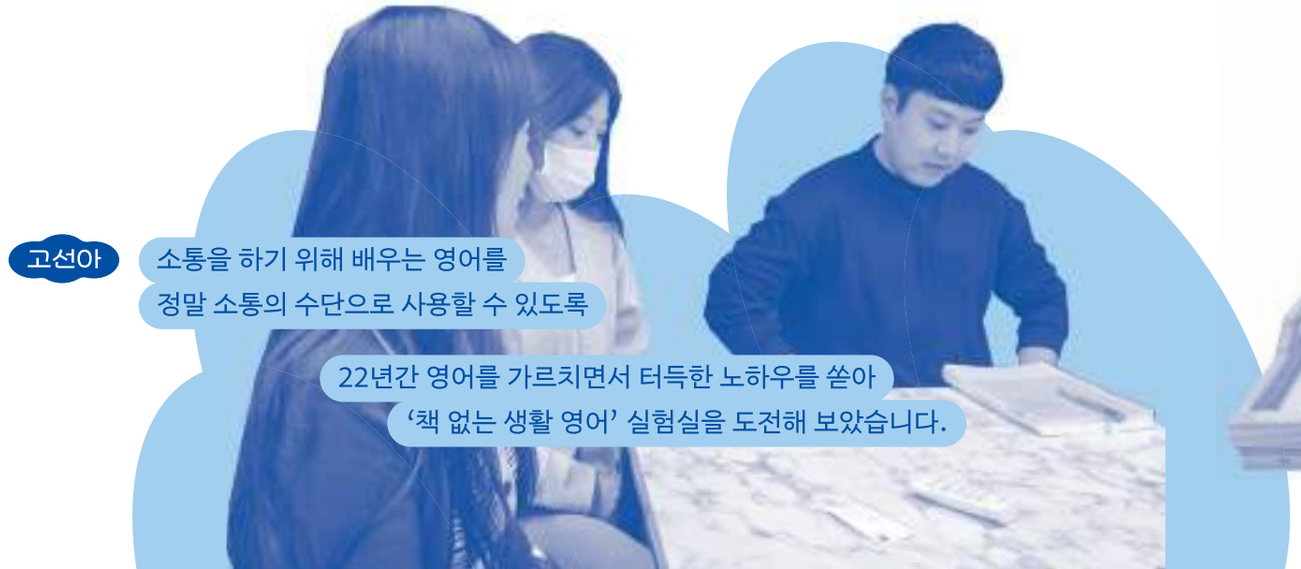
실험실 한줄소개
책 없이 배우는
영어가 더 재미있고
효율적이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다가 26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 의정부에 와서 영어 교육과 동물 관련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래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학원에서 네이티브로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곳은 1시간 안에 다양한 책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책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아이들 수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아, 이건 영어 실력을 늘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학원을 다 마쳐 놓고 따로 나와서 또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쳤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가르치는 영어는 책을 덮으면 끝난다는 느낌이 들었고, 책 없이 끊기지 않는 대화를 해 보는 것이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영어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책만 보다가 책을 덮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해 보는 영어를 하기 위해 시도하게 된 것이 '책 없는 생활 영어'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은 우리가 '공부'로 여기고 어려워하는 영어를 다른 방법으로 접해 보자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책상 위에는 교재가 없었고 앞에 사람들만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주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해도 책 없이 영어를 편안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웃음도 오고 갔습니다. 두 시간을 계획했는데, 끝나고 참여자분들이 가시고 나서 전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해 보았을 때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아 보지 못했고 영어라는 것도 이렇게 재미있고 편안하게 배울 수 있구나,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라는 리뷰를 받았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 속에서 책 없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획기적이었고 실험실을 해 보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선아
소통을 하기 위해 배우는 영어를
정말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2년간 영어를 가르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쏟아
'책 없는 생활 영어' 실험실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자존감 뿜뿜!!! 의욕 뿜뿜!!!

실험지기
고태화

실험실 한줄소개
냅킨아트와
레진아트의
기본 기법을 배우고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가지며 나도
금손이 될 수 있다는
자존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내
삶을 디자인해 보는
실험이다



저는 꿈나무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예 테라피스트 고태화입니다. 다양한 공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예를 배우러 오신 분들께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저 똥손인데, 만들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저의 대답은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완성품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본인이 만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십니다. 그럴 때는 엄청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십니다. 그런 반응을 보며 100만원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은 '의미'였습니다. 직접 그린 어반 스케치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특별한 가방을 만들었고, 레진 아트 액세서리는 그동안 살아온 나에게 주는 나만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는 귀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손의 능력을 끄집어 내고 결과물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하나씩 맡아 전시회라는 성과물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금손이다'라는 마음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손,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손,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손, 결국은 함께하는 금손이 되었습니다. 많이 웃고, 놀라고, 발견하고, 말하고, 만족하고 웃으며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니, 나에게 이런 재능이 숨어있었다니!"라며 소감을 전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예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잘하는 것을 공유하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과일청을 잘 만드시는 분은 맛있는 차를 공유해 주셨고, 뜨개질을 잘하시는 분은 아기자기한 용품을 공유해 주셨고, 맛있는 커피와 다과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공예 후 식사를 하며 친목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눈다는 것이 더욱 보람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태화
당신의 손도 금손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우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제공해도 누구 하나 똑같은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으로 완성되기에
당신도 특별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인댄스의 생활화

실험지기
김은경

실험실 한줄소개
정음마을 봉사자들과 어르신 대상 라인댄스 생활화의 가능성을 실험

저는 댄스를 좋아하고 댄스를 대중의 스포츠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의정부 1동에서 은경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와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댄스 생활화를 사회 공헌으로 접목시킬 연구를 하며 사는 고산동 주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스포츠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간, 장소,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이면 스포츠 댄스를 즐깁니다. 간단한 무술도 스포츠로서 대중화된 것을 보고 우리도 춤을 일상에서 가볍게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기존의 노인 프로그램을 탈피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로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라인댄스는 남녀노소 가능하고,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사람 수에 상관없이 작은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춤으로만 아니라 스포츠의 기능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부부, 시니어 플래너, 주부, 일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장소는 은경댄스학원, 경민대학교 행복캠퍼스, 고산동 공원과 정음마을, 고산동 작은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할 때는 약 5분 내외의 음악과 어렵지 않은 스텝으로 시작했고 어르신들께서 너무 잘 따라오시며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실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도 간단한 댄스로 구성하니 아주 잘 따라오셔서 무척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은경 운동을 싫어하거나 나이 때문에 망설이거나 또 '춤'이라고 하면 '나는 못 춰'라고 이야기하며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라인댄스는 음악과 함께라서 접근하기 좋고 운동이라는 부담이 없어요.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NO밀가루 NO설탕 건강 디저트 만들기

실험지기
박소정

실험실 한줄소개
설탕과 밀가루를 대체하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 만들기



의정부에서 살고 출퇴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평범한 의정부 시민입니다. 직장의 스트레스와, 퇴근하고 1시간이나 걸려 집에 오면 허기짐을 음식으로 달래며 과자, 초콜릿, 빵, 마카롱,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설탕과 밀가루를 멀리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끊기란 쉽지 않아 몸에 나쁘지 않은 대체 당을 찾아 직접 NO설탕, NO밀가루 브라우니 만들기, 파운드케이크 만들기 등을 즐기며 건강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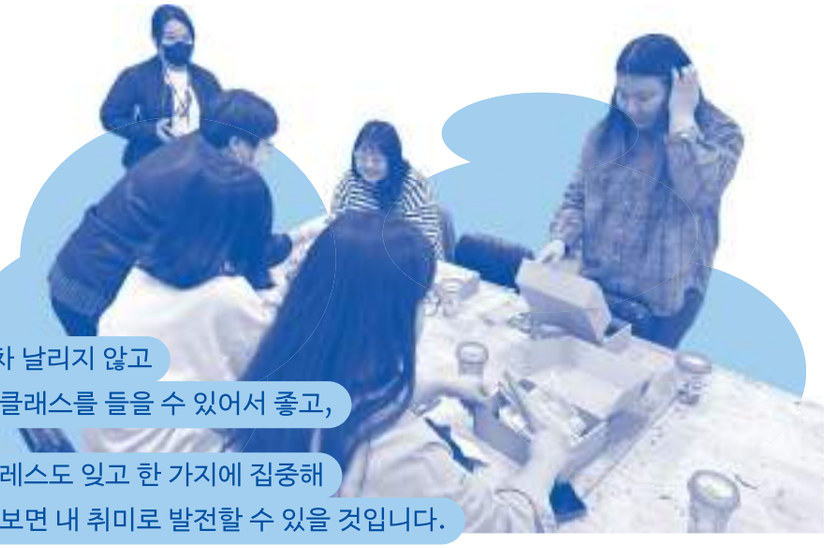
실험을 통해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맛있는 디저트를 달콤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문이 넓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NO밀가루, NO설탕 베이킹을 기획할 때 다이어트와 식습관 측면에서만 생각했었는데, 한 실험 참가자분께서 신청하신 동기가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이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및 피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NO설탕, NO밀가루 건강 디저트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한 디저트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으며, 직접 만들어 먹으니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아니까 믿음직스럽다는 후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시중 제품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고, 집에서도 복습할 수 있게 재료를 제공받아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 베이킹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특히 실험실의 구성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실험지기로서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니 저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소정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건강한 디저트 문화가 실험 참가자들의 주변과 가정 내에서 확산이 되고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직딩놀이터



이선재

아까운 연차, 반차 날리지 않고
재미있는 원데이클래스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
직장 스트레스도 잊고 한 가지에 집중해
몰두하다 보면 내 취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지기
이선재

실험실 한줄소개
새활용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취미 만들기

저는 포천에 살고 있고, 의정부에 있는 디자인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 9년 차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배우는 것을 좋아해 의정부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원데이클래스나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찾아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인 오전 10시, 오후 3시~4시에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 참여하면 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 보는데, 주말은 평일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직장인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직딩놀이터'입니다.
직장인들이 애매하게 남는 시간 없이 퇴근하고 바로 와서 간식을 먹고 한 시간 신나게 떠들면서 무언가 재미있는 취미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 쓸모없는 자투리들이 새활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면 그만큼 지역의 환경오염도 줄고 더 가치 있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직장인을 위한 취미 만들기 + 새활용]을 결합한 '직딩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직장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다렸다고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고, 의정부시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제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서 평소와 같이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며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 루틴보다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뜻깊었고, '직딩놀이터'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운영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딩놀이터'가 끝난 후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와 큰 변화는 없지만 새활용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회용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새활용 제품을 구매하고, 분리수거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받기 위해 참여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직딩놀이터'에서 운영했던 양말목 공예가 너무 재미있어서 취미로 계속 다른 것들을 도전한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실험지기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정부 직장인, 술 대신 춤은 어때?

실험지기
최동혁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의 댄스

학생 때부터 의정부에 자주 나와 놀고 현재는 의정부에 직장이 있는 한 청년입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다 보니 건강이 나빠져서 술 말고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종영한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를 떠올렸습니다. 춤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트릿 맨 파이터'의 애청자였으며, 프로그램이 유명해지며 집에서 춤을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팝과 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취미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를 모집할 때는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였고, 공개된 계정이다 보니 접근하는 데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와 같이 오는 친구들도 있어 생각보다 많이 모여주었습니다. 찾아 보니 의정부 내에 대여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중에 넓고 TV 화면도 큰 스튜디오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3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에는 기본기를 다지고, 2, 3회차에는 아이돌 노래 중 한 곡을 함께 정하여 군무를 연습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주어 고맙고 재밌었습니다. 술 대신 춤을 추면서 컨디션도 좋아졌고, 처음 보는 사람들일지라도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만나다 보니 두루두루 어울리는 화목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게시하게 된 것도 신기했습니다.

최동혁

퇴근 후 잦은 술자리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살도 찌며 다음날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으나,
술을 마시는 대신 춤을 추어



하루 스트레스를 날리고 운동도 되니
다음날 컨디션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패턴아트 클럽

실험지기
홍성은

실험실 한줄소개
콜라주 작업을 한 타일에 패턴을 그려서 써클북을 완성하는 4주 클래스

저는 패턴을 그리면서 힐링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홍성은입니다. 종이 타일 위에 검정 펜으로 좋아하는 패턴을 그리는 시간은 힐링 되는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그림을 처음 그리는 분들과 함께 패턴을 그리는 쉬운 방법을 소개하고 각자 개성 있게 그린 패턴을 함께 나누며 응원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에서 꾸준히 패턴아트 활동을 하는 동아리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패턴아트 클럽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도전했습니다.

패턴은 낙서와 다르게 그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 선, 곡선, 동그라미만 그릴 수 있다면 누구나 쉽고 멋지게 작품 같은 패턴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펜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면 클래스 안 공기는 차분해지고, 집중하며 움직이는 펜의 사각거리는 매력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실에서는 콜라주 작업을 패턴아트에 응용한 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콜라주 재료를 업사이클링에 접목하여 다양하게 꾸미는 참여자분들의 아이디어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간식으로 제공했던 김밥 포장지의 은박지를 풀로 붙이고, 집에 있는 잡지나 팸플렛을 가져와서 좋아하는 글이나 숫자를 오려내면서 각자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패턴을 그리는 다양한 방법도 공유해 드렸는데 참여자 다섯 분 모두 같은 패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각자 그날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패턴의 크기도 선의 굵기도 달랐습니다. 서로 완성한 타일을 한데 모아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응원하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패턴아트 수업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아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홍성은

우리는 4주 동안 여섯 장의 타일을 그렸습니다.
완성한 타일을 써클북에 보관했고,
그 안의 각자 작품에는
굉장한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정부 산책 도서관

실험지기
강명지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시민들의 일상에서 책을 만나는 실험으로 산책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의정부 아름다운 동네 고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책이 좋아 책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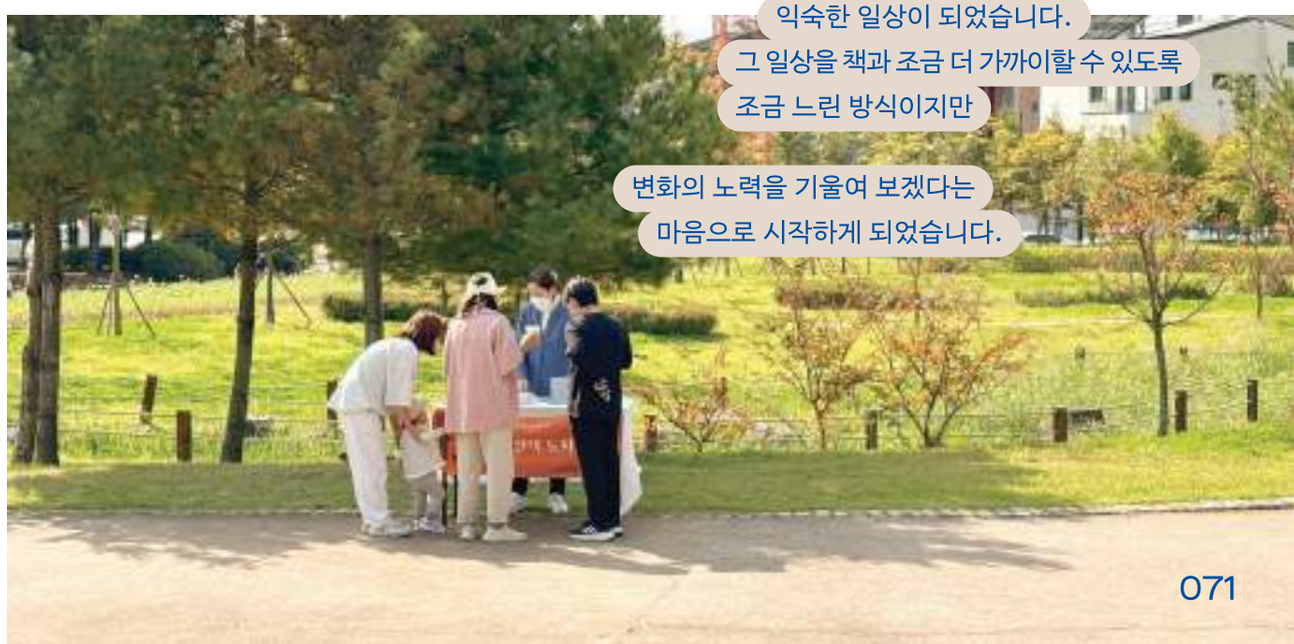
저는 산책하러 나가거나 집을 나설 때면 무조건 책을 챙겨 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잠시 반려견 산책을 나오거나 공원 산책을 할 때 책을 챙기는 것은 번거롭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험은 산책 중,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더 책을 만날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운영하면서 야외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장소 섭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정부 시내, 중랑천 일대, 송산사지 등 다양한 곳을 염두에 두고 탐방하였는데 여러 고민 끝에 송산사지근린공원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송산사지근린공원은 깔끔하게 조성이 잘 되어있고, 번잡하지 않아 야외독서를 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스를 차려 책을 들고 외출하지 않았더라도 산책 중 잠깐 쉬는 시간에 읽을 수 있는 엽편소설과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80부 내외로 제작한 제작물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원래 산책 도서관은 고정 부스를 아름다운 의정부의 공원들에 설치하고 도서를 비치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니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받자는 취지에서 일일 산책 도서관부터 출발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라고 응원해 주셔서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받은 설문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장소에서 책 문화를 알리고 책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강명지

잠깐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일상을 책과 조금 더 가까이할 수 있도록
조금 느린 방식이지만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북토크 서비스 '소피(Sophy)'

실험지기
강민지

실험실 한줄소개
책을 출판한 작가와 의정부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규모 북토크를 자체 제작 웹사이트로 신청 받아 의정부 공간에서 2회 개최한다

저는 의정부살이 17년 차 25살 대학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화도시의정부에서 문화도시 기자단(에디터)으로 활동하며 의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 원데이클래스,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사람들을 관찰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고민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 재미를 넘어 배움이 있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주민과 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작가와의 만남', 즉 '북토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정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의정부 내에서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정부에 있는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공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독립서점, 카페 등 주민들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공간에서도 충분히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피 팀원들은 모두 대학생 IT 창업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로 이루어진 소피 팀은 주민들의 북토크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웹사이트를 7월부터 4달 동안 제작하였습니다. 소피 웹사이트에서는 지역별 북토크 검색과 북토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피는 총 2번의 북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강 작가님과 신곡동 '책방 옥상에앉아'에서, 두 번째는 김민희 작가님과 가능동 '안부, 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북토크 모두 자체 제작한 웹사이트를 통해 각각 선착순 5명 신청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모집 마감이 되었습니다.

소피를 통해 처음 북토크를 접하신 주민분들도 있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북토크에 모두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도 있었습니다. 소피가 누군가에게 처음 북토크를 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북토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소피를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주민들의 일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강민지 '소피'는 지역의 공간을 아지트처럼, 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책에 대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주민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꿈꿉니다.



Control+c Control+v 카페에 책을 입히다

실험지기
김서현

실험실 한줄소개
카페와 책을 함께 매칭시켜주는 실험

의정부 토박이로 태어날 때부터 의정부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무척 좋아했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독서와 관련한 탐구 활동 및 토론 활동을 교내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독서를 활용한 활동을 직접 구상하여 실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독서량이 적지만 카페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카페와 책이 서로 매칭된다면 사람들이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사장님들께 직접 포장된 책을 전달하고 학교 친구들 중 의정부에 가깝게 살거나 의정부에 사는 친구들을 선정하여 책을 선물했습니다. 책의 가치를 높게 사는 독립서점과 같은 특정 서점들을 찾아가 책을 직접 둘러 보고 구매했습니다. 책과 카페를 매칭하기 위해 카페의 분위기와 사장님의 철학, 카페의 주요 고객층 등을 일일이 파악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책을 선정한 후 포장지로 감싸 리본으로 묶어서 카페 사장님들께 선물해 드렸는데, 감동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 주시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책 선물을 받은 친구들은 그 책을 읽고 있는 인증 사진을 보내 주었고 선물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굉장히 기뻤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을 다른 청소년 친구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확장 워크숍에서 제가 이번 100만원실험실 실험지기 중 유일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도 무척 재미있었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해 보지 못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100만 원은 큰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고, 돈을 쓰는 것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김서현 실험실 이름의 'Control+c Control+v'는 카페에 책을 매칭한다는 의미예요. 한국은 독서량이 적은데 카페 이용률이 높으니까, 책과 카페를 매칭하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내 휴대폰 어디갔지?
(휴대폰 없이 살아보기)

실험지기
이난영

실험실 한줄소개
화면 속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선물함으로써 주변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저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카페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이 많고, 함께하는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TV에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이가 나와서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 하루가 빨리 지나가더라도 하루 끝에 남는 게 없는데,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 하루를 보내니 장면 하나하나가 기억에 또렷이 남는다."라고 한 말이 인상 깊어서 디지털 디톡스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쉬는 날엔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하루를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하루를 보내면 왠지 모를 헛헛함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내 주변의 것들, 내 내면과 소통한 날이면 그런 날이 더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빠른 자극과 도파민만을 찾는 시기에 다 함께 디지털 디톡스를 실험하고,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것처럼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실험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모여서 휴대폰을 걷은 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드게임, 배드민턴,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기나 놀이터에서 놀기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을 걷은 뒤 앞에 있는 사람들과 놀면서 이야기하니 휴대폰을 찾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니 불안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은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불안,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휴대폰이 아닌 다른 것, 책이나 게임, 서로에게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휴대폰이 없으니 오히려 어색한 시간은 짧아지고 상대에게 관심을 두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 좋았습니다. 또 자기 내면에 집중하며 더욱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제일의 장난감인 휴대폰을 놓으니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난영 휴대폰을 놓자 우리는 멈췄고, 시간이 흐르며 창의적인 움직임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르신 인간극장: 노인이 청년에게

실험지기
강서연

실험실 한줄소개
어르신들과 슈링클스 체험을 하고, 추억과 인생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며 청년들과 결과물을 공유하여 세대공감을 이끌어내는 실험

저는 현재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봉사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과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고,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면서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좋은 말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실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말씀이 담긴 스티커를 굿즈로 제작하여 의정부 시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께 좋은 추억과 경험, 그리고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에 응하는 결과가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방문해서 열쇠고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림 같은 거 잘 못 그린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슈링클스 종이에 열을 가해 크기를 줄여 키링으로 만들어서 전해 드리면 정말 예쁘고 귀엽다며 좋아하시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해 달라고 하였을 때 모두 즐거워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게 기억납니다. 어르신들이 해 주신 말씀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건강', '젊음', '행복'이었습니다. '웃으며 살자', '젊음은 항상 젊은 것이 아니다' 등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평소 가지고 계시던 생각이나 말씀들을 표현하신 것 같아 좋았습니다.

마지막 경로당에 갔을 때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그 어르신께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하시니까 재능을 발견한 것처럼 뿌듯해 하시며 그림을 한 장 더 그리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자 만드신 키링을 가방이나 옷에 거시는 분도 계셨는데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강서연 앞서 인생을 걸어본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어르신 인간극장: 노인이 청년에게'를 통해 세대 간에 소통의 물꼬가 조금이라도 트이길 바랍니다.



너의 이름과 의미를 불러줄게

실험지기
권기연

실험실 한줄소개
어르신들의 이름과 의미를 손글씨로 적어 소중함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다락꿈은 글씨를 쓰는 캘리그래피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글씨를 쓴다는 것을 행위에 대한 것과 결과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쁘게 혹은 멋지게 쓴 글씨가 좋은 글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글씨를 쓰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글씨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곱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와서 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회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에겐 꽃처럼 고운 존재임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꽃의 의미를 생각하며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의 의미를 살려 잊힐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적어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존경과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를 꽃처럼 느낄 수 있게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 옛날 조각보 느낌처럼 한글 패턴으로 작업해서 더 곱게 꾸며드리고 싶었습니다.



작품을 배부해 드리며 어르신들께 설문지를 받았는데 그중에 '내 이름을 써주니 내가 부활한 것 같았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문지를 통해서나 현장에서 이름이 쓰인 액자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친 회의와 수고, 어려움이 얼마나 보람찬 것이었는지 새삼 더 뿌듯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뵌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아이 같은 미소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한 다락꿈 구성원들에게도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실천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권기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의 문장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글씨를 통해 고마움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U토피아 (청년 퀴어비건프렌들리 네트워킹 파티)

실험지기
길최민서

실험실 한줄소개
모두가 환영받는 청년 네트워킹 파티 개최

저는 인권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 인권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의정부에는 왜 이런 행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연한 계기로 100만원실험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과 함께 네트워킹 파티를 직접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파티는 카페 빛뜨레커피에서 열렸습니다. 본 실험실은 동성 친구와도 사주궁합을 볼 수 있으며, 음식 또한 비건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30명을 모집하였고, 파티에 입장하면 파티 내에서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적어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부스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는데 의정부 독립서점 '책방 옥상에 앉아'와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밤달의 캐리커처', 비즈공예를 할 수 있는 '무주의 비즈공예', 연말에 적합한 사주를 볼 수 있는 '겨울맞이 운세'가 있었습니다. 무인 운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아무말 보드'에는 자유롭게 글씨를 적을 수 있었고 '사랑이란 뭘까요'에는 포스트잇에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고 폴라로이드로 자신의 사진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보드게임 존'에서는 파티의 사람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공식 행사로 다.모.사 팟캐스트(오디오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사연자들의 사연을 받고 청년 콘텐츠 그룹 81.54 MC들이 다채롭게 구성된 팟캐스트를 통해 이번 파티의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의 마지막으로 추추클럽 밴드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파티 케이터링을 비건 음식으로 준비해서 논비건 분들은 거부감이 있으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모두 싹싹 비워주셔서 비건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넓힌 것 같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길최민서

의정부에도 나를 비롯한 인권,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짝



김은진

사람은 소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타인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인스턴트식의
가벼운 만남이 난무하는 요즘,
'단짝'이 따뜻한 불씨를
재점화했기를 바랍니다.

실험지기
김은진

실험실 한줄소개
외국인과 한국인이
단짝이 되어 떠나는
의정부 명소

이 실험실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1:1 단짝이 되어 의정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의정부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모르는 한국인과,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친구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껴 단짝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신청자들은 대부분 경기 북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 신청자들은 대학교와 대학원 등 한국어 교육 전공 동문회 게시판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취업 전까지 외국인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들에게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해외 유학 경험이 있거나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았던 외국 문화를 실제로 외국인들과 만나 직접 듣고 접하며 이야기를 들어 보는 시간이 특별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참가자는 의정부에 살면서 매번 가던 곳(고향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만 갔는데, 부대찌개 거리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부대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참가자들로부터 평소에 접하기 힘든 프로그램에 참가해 신선한 경험을 선사해 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의정부의 멋진 곳들을 알게 되었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두껍아, 작품줄게 추억다오!

실험지기
박은실

실험실 한줄소개
추억의 물건을 의미
있는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캘리그래피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면서 공방 카페를 통해 지역주민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래피로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이야기하던 중, 아이들의 탯줄, 작아진 옷가지 등 소중하지만 어찌할 바 몰랐던 물건이 집안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음이 안타깝게 여겨졌고, 또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와 물건들로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카페닮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추억이 깃든 물건과 사연을 나눌 의정부 시민 일곱 명을 모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받은 돌멩이, 어머니 사진, 부모님 사진, 아기들 탯줄, 반지, 오래된 액자, 미트와 대표 선수 배지, 자전거가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모집하려던 인원은 일곱이었지만 추억의 물건을 작품으로 돌려받아 보관하게 될 최종 참여자는 여덟 명이 되었습니다.

개인 추억을 공유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나눠 주신 만큼 캘리그래피와 섬세하게 어우러진 작품으로 보이기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건에 얽힌 사연을 모으는 작업도 공들여 진행했습니다. 질문지를 준비해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 여덟 명에게 한 사람당 두 시간에 걸쳐 사연, 의도, 구상 여부 등 최대한 자세히 물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관 방법과 장소에 관한 의견도 여러 가지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A3 사이즈 캔버스 또는 A4 사이즈 관 액자에 신청자가 맡긴 물건과 캘리그래피 디자인을 앉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물을 참여자들에게 선보이는 작은 전시를 카페닮 공간 한쪽에 꾸렸습니다. 작은 오름 하나를 등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설렘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었고, 참여자들의 반짝거리는 순간 속을 거닐고 있을 때는 제가 오름 정상에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개개인의 인생사를 털어놓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어드린 것뿐인데, 힐링하고 간다고 고맙다는 말씀까지 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은실

추억하고픈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냈습니다.
참여자들과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하수다방 그때 그 오빠

실험지기
신미희

실험실 한줄소개
추억의 LP 다방에서 신청곡과, 그 곡에 담긴 사연을 DJ가 소개하며 7080 세대와 신세대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실험

저는 의정부에서 살고 있는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문화 예술인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7080 세대로, 추억이 담긴 그 세대의 음악 듣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실험실은 예전의 DJ가 음악을 틀어주던 다방을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컨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의정부 시민들이 음악다방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것을 느껴 이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7080 세대에게는 '음악다방'이 그리움과 그 시절의 향수로 느껴질 수 있고, 신세대에게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문화 공유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레트로'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과 같이, 음악을 통해 세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영화음악, 가요 등 음악에 담긴 추억이 한 장 한 장 LP 판을 통해 카페로 전해졌습니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순식간에 흥이 오른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춤을 췄습니다. 머뭇거리는 친구의 팔을 끌고 세우고, 먼저 나선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춤꾼들 옆에는 그들을 영상 속에 담는 카메라맨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써니'의 한 장면처럼, 나팔바지와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고서 무대를 휘어잡을 것만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익숙한 노랫말, 익숙한 멜로디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삼삼오오 모여 분위기에 심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시나마 추억 속 음악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실험실은 신청곡과 그 노래에 담긴 사연을 함께 보내면 은하수 다방 DJ가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곡 정도와 그 곡에 담긴 사연을 신청자들을 통해 미리 링크로 받아두고, 현장에서도 5곡 정도와 그 곡에 얽힌 사연을 받아 보았습니다. 올드팝, 컨트리, 연주음악,

신미희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음악과 사연에 치유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함께한 분들은 추억을 소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무랑

윤선미
나무라는 소재는 사람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그 결을 다듬는 과정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여 힐링을 줍니다.
도마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쏟은 정성과 기쁨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험지기
윤선미

실험실 한줄소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무 도마를 만들면서 힐링타임 갖기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워킹맘이면서, 의정부에서 주식회사 꿈꾸는사람들이라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CEO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나무 안내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으로 나무 안내판의 자투리 나무를 상품화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우연히 나무 도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도마를 만들면서 촉각과 후각으로 나무가 주는 향과 결의 변화를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평일은 회사일로 주말은 육아로 동분서주하며 숨 가쁘게 흘러가는 시간에 잠시라도 쉼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의정부 관내 많은 취약계층의 참여자분들이 지친 일상을 위로받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무랑'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주는 따뜻함을 느껴 보자는 의미로 실험명을 '나무랑'으로 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참여자 모집이었습니다. 처음 모집을 위해 여러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달리, 바쁜 일상에 짧게 시간 내시는 것도 힘든 가정이 많아 모집이 힘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어 문화생활을 즐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문화 활동이라는 공간으로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근이나 카페를 통해 홍보를 진행했고,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분이 참가를 신청해 주셨을 때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굳어있고 어색했는데 학생 두 친구 덕분에 실험실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사포에 갈려나가는 톱밥으로 별거 아닌 장난을 치면서 꺄르르 웃는데 오랜만에 동심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의 글로벌한 한가WE

실험지기
조호영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 거주
또는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과
한가WE를 보내며
문화적 체험과
의정부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 음식
부대찌개 거리를
방문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커뮤니티 모임 참여 등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조호영입니다. 외국인 모임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문화도시의정부에서 주최하는 100만원실험실로 외국인 친구들에게 의정부라는 도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의정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다섯 분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인 1명, 미국인 3명, 아일랜드인 1명과 함께 의정부의 대표 문화 장소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컨셉의 도서관 중 민락동에 위치한 의정부미술도서관을 투어하고, 대표 먹거리인 부대찌개를 먹었으며,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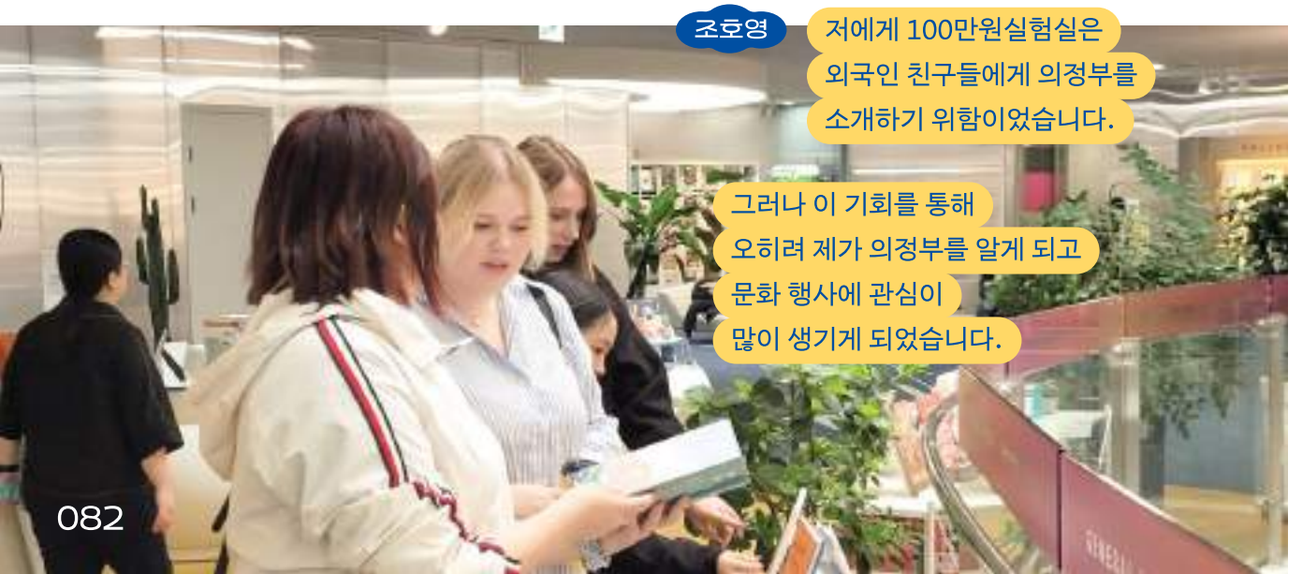
재미있는 경험도 했습니다. 실험 이전의 명절에는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휴식을 취하며 보통의 주말처럼 비슷한 일상을 보내거나 서울로 나가 외국인들에게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장소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한국에 거주하며 주로 서울에서 모임을 갖거나 홍대, 이태원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들만 갔었는데, 의정부에도 다양한 활동 특히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앞으로 타 지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잘 홍보해서 의정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의정부미술도서관, 의정부음악도서관, 의정부영어도서관, 송산사지는 주변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 할 것이 없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의정부가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라 부대찌개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다고 했고 라면, 떡, 만두를 넣어 먹으며 사리를 추가하는

조호영
저에게 100만원실험실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의정부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오히려 제가 의정부를 알게 되고
문화 행사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장년들의 감성을 만져주자!

실험지기
주경애

실험실 한줄소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림책 놀이 상담

저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주부이며 경민대학교에서 그림책을 공부하며 목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녹양동 시민입니다.

노인 프로그램이 디지털화되어가면서 대화 상대가 AI가 되어 감성까지 만져 주지는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가 가진 그림책 놀이 상담 자격증으로 사회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고 제가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느낀 감성의 치유를 어르신들께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림책 놀이 상담은 그림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삶의 대화를 끌어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상담의 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도 갖게 됩니다. 대화 상대 없이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감성을 건드려 각자의 삶에 큰 울림을 남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책 놀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책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책을 PPT 영상으로 보면서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장면에 따라 작가의 의도나 담긴 교훈을 나누며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통 상담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림책 상담은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상담은 정형화된 정답에서 벗어나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과거 자기의 모습을 불러내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위로하고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웃거리며 낯설어하셨지만, 1차시가 끝나고 나니 모두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셨고, 앞으로 그림책 프로그램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경애
저는 그림책 놀이 상담을 '인생'이자
'이정표'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번 그림책을 찾아보세요.
그림책을 통해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어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얼씨구 의정부!
절씨구 우리들!

실험지기
최현주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상징물을
모티브로 노인들이
직접 창작무용 만들기

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창작무용을 가르치고 있는 최현주입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무용단에 9년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지내다가 무용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노인 무용 예술강사로 일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고향이나 다름없는 의정부에서 노인 창작무용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게 사실 처음엔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춤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시작과 다르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익숙지 않은 경험이겠지만 결국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같이 해 줄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얻는 실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상징물을 가지고 춤을 창작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에는 시화, 시목 같은 상징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랜 시간 의정부에 거주하신 어르신들도 의정부에 대해 잘 아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징물을 찾고 슬로건을 읽어 보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비둘기, 철쭉, 잣나무 세 가지 키워드로 세 모둠을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셨습니다. 무용을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도 계셨는데 너무 재밌어하셨고 결과물도 좋아서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어르신분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춘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으니 결과물이 이렇게나 좋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춤과 음악에 접목하여 그 애정을 춤에 담았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노인 창작무용이 노인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원실험실이란 새로운 발견입니다.

최현주 의정부가 추구하는 슬로건 중에 행복이 퍼져나가고 번져 나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리 움직임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고리의 움직임처럼 우리의 창작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특별한 아침



권재연 우리가 육아맘이라서 '누구의 엄마'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의 엄마'라는 말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실험지기
권재연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육아맘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들려
드리고 빵과 음료를
제공하여 특별한
힐링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저는 의정부 토박이고, 의정부에서 음악 연주 활동과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저는 일 년에 40번이 넘는 연주와 다양한 공연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아맘을 위한 음악회는 찾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육아맘들 또한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음악회를 잘 데리고 가곤 합니다.

이 실험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돈 쓰기를 힘들어하는 육아맘들에게 따뜻한 빵과 차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음악을 제가 연주해 드리는, 이야기가 담긴 육아 힐링 음악회입니다. 저도 아이를 육아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기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처럼 육아에 지친 육아맘들에게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제 자원인 '피아노 연주'를 '연주 기획'과 합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육아맘들이 원하는 음악으로 신청곡을 받았고 모든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육아 이야기를 접목시켜 육아맘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에 계신 선배맘으로서 시 낭송가를 초대하여 지친 육아에 힐링이 되는 시를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며, 의정부에서 4살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는 직장맘을 초대하여 노래를 들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듣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모든 분의 문자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많은 분께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빛이 나는 특별한 아침을 선물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많은 힐링과 에너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선배맘으로서 항상 자신을 위한 시간을 냈으면 하고 꼭 건강하시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았다고 합니다. 연주뿐 아니라 의미 있는 말들을 들어서 마음이 따뜻했고 앞으로도 무언가 잘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피드백들을 들으며 참 뿌듯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엄마들의 미술놀이

실험지기
김동희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 거주하는 30~40대 엄마들과 함께하는 미술 놀이 실험

저는 서양화 중에서 수채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이며 조그만 미술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항상 청소하거나 엄마들과 모여 커피타임을 즐겼습니다. 이런 시간을 쪼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릴 때 하던 놓았던 붓도 잡아 보고, 요즘 유행하는 아크릴화, 수채화도 그리면서 나의 또 다른 취미를 가져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엄마들이 매일 하던 집안일의 루틴을 버리고 하루쯤은 모여서 취미를 공유해 보고자 계획했습니다. 모집인원은 6명이었고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흥선동 동그라미미술교습소에서 모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총 4회의 실험으로, 첫 번째 수업에서는 아크릴물감과 과슈(물과 고무를 섞어 만든 불투명한 수채 물감)의 특징을 알아본 후 채색 연습을 했으며, 두 번째 수업에서는 캔버스에 스케치 후 물감을 채색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채색 기법인 그러데이션을 연습했고, 네 번째 수업에서는 그러데이션을 이용해 캔버스에 수채화로 석양, 바다



등을 그렸습니다. 결과물로 한 사람당 총 2개의 캔버스(아크릴화, 수채화)를 완성했습니다.

여섯 분 모두 고등학교 이후 처음 잡는 붓이라 옛 추억이 생각났으며,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한 분도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은 지금까지 몰랐던 뛰어난 색채 능력을 알게 되어 다 함께 감탄했습니다. "나 재능 있네!" 하셨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때 과학고등학교 면접을 보는 아이의 어머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떨리는 와중에도 수업에 참여하셔서 감탄했습니다.

대부분 중학생 어머님들이라 수업 중간의 대화는 진학 문제(고등 입시)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라 비슷한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공감하는 주제가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 보는 붓에 모두 많이 웃었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급한 성격, 차분한 성격 등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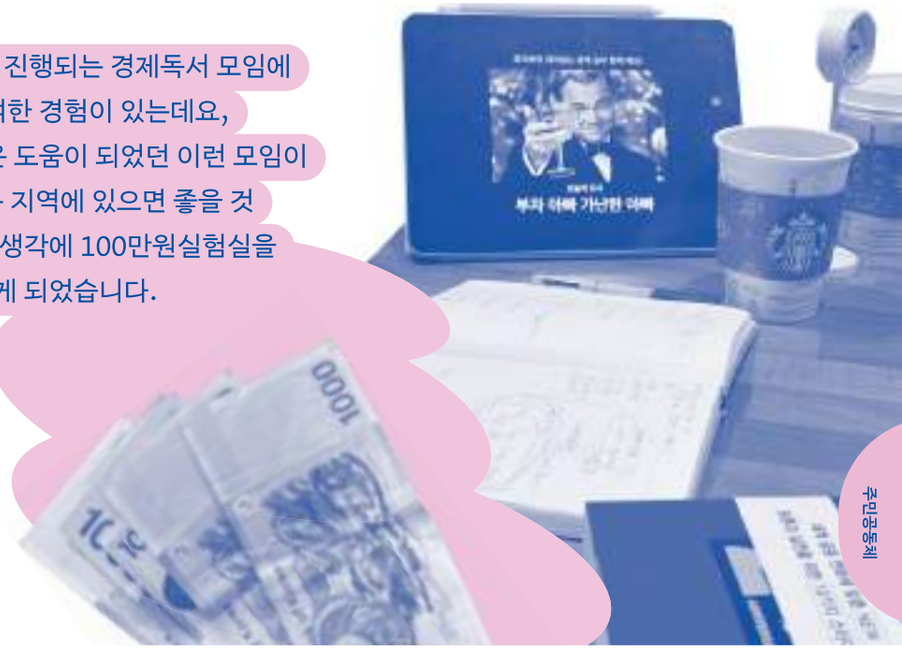
김동희 엄마들은 '완성'이라는 단어와 먼 삶을 살아가지요.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래서인지 참여자들이 완성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보람됐던 순간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의 성장을 돕는 경제인 모임

김혜진 서울에서 진행되는 경제독서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이런 모임이 내가 사는 지역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00만원실험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지기
김혜진

실험실 한줄소개
혼자 하기 힘든 경제 공부 지역 시민과 함께하기

저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인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의정부 시민입니다. 매번 혼자 하다 지속하는 걸 실패하던 어려운 경제 공부를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구상하게 되었고, 100만원실험실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실을 통해 독서와 토론으로 경제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평소 읽고 끝내기만 했던 독서에서 책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 행동으로 옮겨 보는 습관이 길러진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회차 실험 진행 후 참여 구성원들이 책 내용 중 실천에 옮길 활동과 목표를 정하여 스스로 과제를 하고 다음 회차에 진행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각자의 방법으로 진행한 경제 공부, 경제 활동들에서 얻은 소소한 팁들도 공유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참여 구성원들이 동네 서점을 중심으로 열린 독서 모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지역 시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100만원실험실 이후에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경제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은 입문 과정으로서의 경제와 경제활동을 주제로 공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번 실험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이드잡, 미니멀라이프 등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해서 모임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MZ 뒤에 꼰대 앞에 '낀대'

실험지기
이종민

실험실 한줄소개
소위 '낀대'라 불리는 낀 세대 40대~50대 낀대들이 모여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

MZ 뒤에 꼰대 앞에 '낀대' 실험을 진행한 이종민입니다. 저는 광고 업종에서 16년간 일을 해 왔으며, 현재는 한 기업의 광고 기획자이자 본부장으로 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 하나가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MZ 세대의 취업난,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 문제 등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회문제로 인해 다양한 정책과 해당 세대들에 대한 혜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저축 상품과 취업 증대 정책,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혜택과 교통비 혜택,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및 출산장려금 등등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인해 좋은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책임지고 가장 사회적 활동이 많은 소위 '낀대'라 불리는 40대~50대에 대한 정책과 혜택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40대~50대 낀대들이 모여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과 낀대들에게 필요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들이 어떤 게 있을지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40대~50대를 위한 정책이 의정부시에 마련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앞서가는 도시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나누고 그에 관한 토론을 통해 어떠한 정책들이 실제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정책이라는 다소 따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으나 의외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오셨던 분께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셨던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공무원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종민 40~50대의 대부분은 한 가정을 이끄는 세대로 자녀와 부모님 등 양쪽 세대 모두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낀 세대들이 원하는 정책을 주제로 토론해 본다면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시민운동단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계획하기

실험지기
이평원

실험실 한줄소개
사라져가는 시민운동단체 활동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보존하여 시민 유산으로 남기는 실험

의정부시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시민운동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단체도 생겨나고 의정부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02년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민운동은 송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주민 조직과 의정부지역 시민운동단체가 연대하여 막아낸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당시 활동했던 시민운동단체 중 사라진 곳도 있고 주민 조직 또한 소멸하여 시민 활동이 잊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지역의 삶을 바꾸고 시민이 주권자임을 보여 준 당시 연대활동 등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의정부 시민운동단체 디지털 아카이브(자료 전산화) 구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예전에 시민운동을 했던 분들을 하나하나 연락하고 만나면서 느낀 것은 세월이 지났어도 그때 그 마음들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였어도 예전의 일들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의정부 시민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에 대부분 잘한 일, 좋은 일이라며 함께하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많은 동의를 해주셨으며 본인들이 소속된 단체도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필요함을 얘기하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만남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요청한 사항은 의정부 시민운동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정부를 넘어 경기 북부 전체를 포괄하는 시민운동 아카이브 센터로 확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에 따라 처음 이 일을 논의할 땐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00만원실험실에 참여하면서 두 달이란 짧은 기간 동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이른 시일에 '의정부 시민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평원 과거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카이브에 구축된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킹하는 작은 도서관 '내가 만든 밀키트'

실험지기
주진희

실험실 한줄소개
내 손으로 맛있는 한 끼 밥상을 차리며 참여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저는 일곱 살 아들을 키우는 주부이자 열매 작은도서관에서 작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머님들이나 가정주부들을 만나게 되면 종종 저녁 메뉴 선정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가정으로 돌아가면 준비해야 하는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한 고민과 매번 반복되는 메뉴로 인해 요리가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다며 속상해하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니 도서관 주방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100만원실험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보기에 그럴싸한 요리들도 알고 보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요리를 만드는 시간 동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참여 대상자들은 육아 중인 엄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 참여자는 30대에서 50대 후반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각기 다른 실험실 참여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주 저녁을 함께 못하고 부부만 남게



되어 특별한 메뉴로 가족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던 분도 계셨습니다. 암 투병을 하셨고 완치 판정을 기다리며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신 참여자분께서는 가족들을 위한 메뉴로 참여하셨습니다.
참여자분들은 첫 번째 클래스 요리를 완성하여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의 엄청난 호응과 칭찬을 받으셨고 너무 맛있게 드시며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번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분들이지만 금세 너무 친해지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오랫동안 모임을 함께하신 분들 같은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낌없는 재료의 넉넉함에 만족해 주시고 준비한 작은 디테일도 하나하나 알아봐 주시고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의정부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실험)을 공유해 주고 진행해 주어 참여한 여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매우 뿌듯하고 실험지기인 저 또한 소통 덕분에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진희
반찬 나눔 행사를 보면 보통 만들어져 있는 걸 주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요즘 밀키트 매장도 많이 생겼는데 직접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이웃들과 함께 만들고

각자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알아가는 재미



한경희
보통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내 주변만 찍어요.
가는 길만 가고 다니는 데만 다니는데,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모르는 길도 한번 가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해 노강서원, 효자역 근처 꽃밭, 시장 등 다양한 곳들을 다녔습니다.

실험지기
한경희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의 여러 지역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사진 전시회 개최

저는 의정부에 살게 된 지는 14년이 되었고, 현재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의정부시평생학습원에서 스마트폰 관련 사진 촬영법과 동영상, 스마트폰 활용 지도 강사를 양성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수강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계속 함께 사진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개인의 일상만 카메라에 담을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담아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발전하여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주변이 바뀌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속해서 카메라에 의정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의정부 여러 곳을 방문하고 그곳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의 생활영역에만 머물렀던 회원들이 출사를 통해 의정부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 도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처럼 우리 도시를 자세히 보니 예뻤고, 오래 보니 더 정이 가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로서는 14년을 의정부에 살면서도 고향이 아니란 생각에 큰 애착이 없었는데 도시를 사진에 담고부터 이곳이 내가 사는 곳임을 느끼게 되며 정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회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의정부에 오래 살았어도 백석천을 몰랐었다는 분들, 노강서원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는 분들, 동네 마트나 대형마트 중심으로 다니던 분들이 제일시장에 나와 보고 삶의 활기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전시회에 오셔서 우리 사진을 본 시민분들도 사진 속 아름다운 풍경이 의정부가 맞냐고 놀라기도 하셨습니다. 의정부 여러 곳의 사진을 담은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서 내년에는 더 멋진 의정부 사진전을 할 계획입니다.

한 판 뜰까요?

실험지기
허정욱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뜨개질 친구를 만들고 미니 가방 뜨개질을 하며 차도 마시고 이야기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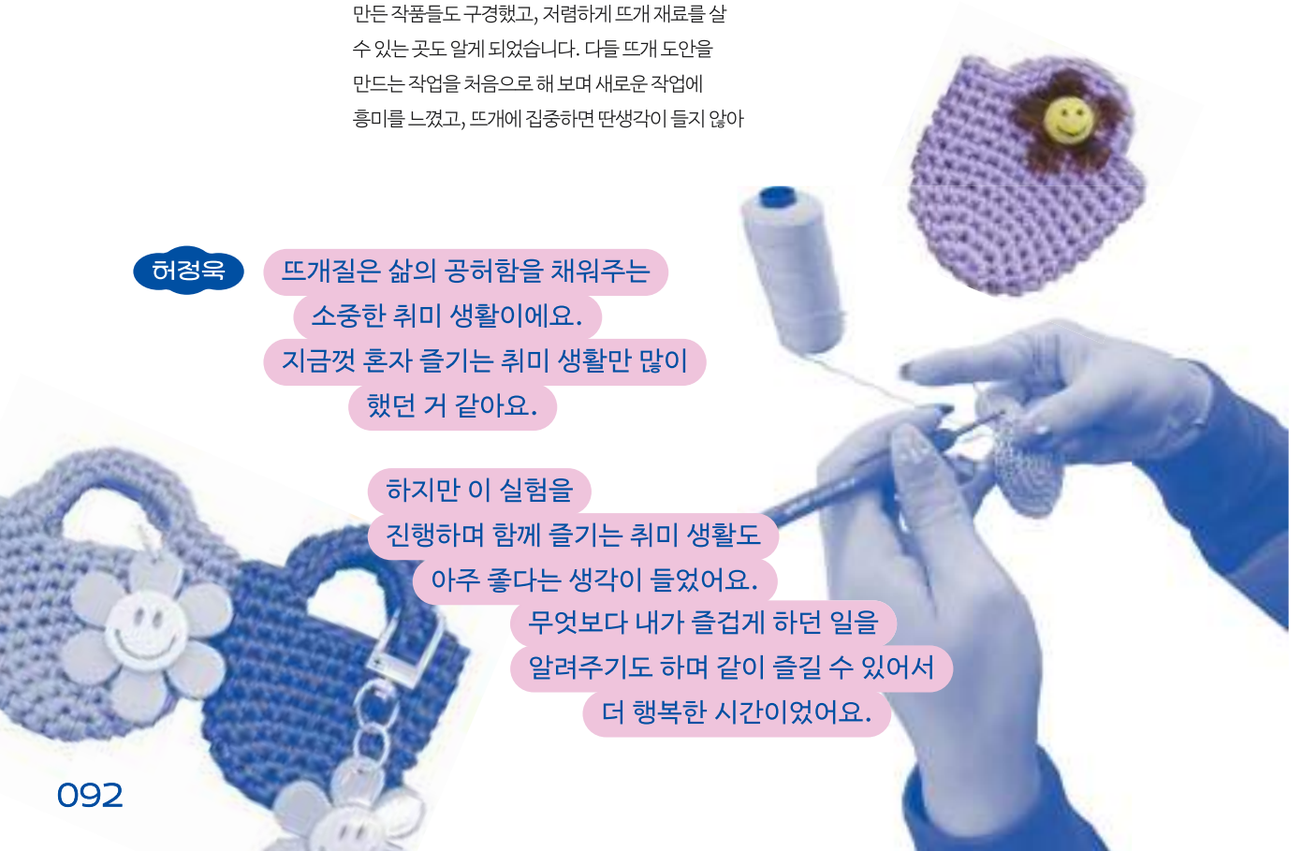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로 의정부에서 산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 판 뜰까요?'란 실험명으로 진행한 뜨개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던 뜨개질이 사춘기 딸과 힘들 때 스트레스를 풀었던 좋은 기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정보 공유, 친목 도모도 하고, 배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참여하여 뜨개질에 입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나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많은 뜨개질 친구가 생겼으며,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취미생활도 나쁘지 않은, 아니 아주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여했던 6명의 뜨개 친구가 생겼으며, 뜨개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만든 작품들도 구경했고, 저렴하게 뜨개 재료를 살 수 있는 곳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뜨개 도안을 만드는 작업을 처음으로 해 보며 새로운 작업에 흥미를 느꼈고, 뜨개에 집중하면 딴생각이 들지 않아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으며,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를 못 했던 분들께 이런 좋은 실험을 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만원실험실이라는 지원 사업을 실험지기로서 참여해 보고 싶다고 신청 방법을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의 실험뿐만 아니라 100만원실험실에 관한 관심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허정욱
뜨개질은 삶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취미 생활이에요.
지금껏 혼자 즐기는 취미 생활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이 실험을 진행하며 함께 즐기는 취미 생활도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즐겁게 하던 일을 알려주기도 하며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의정부 人의 무한한 우주를 담다_전각

실험지기
강신아

실험실 한줄소개
작품의 완성을 sign이 아닌 도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전통문화인 전각을 알리고 활성화한다



K-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글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무한한 우주를 표현할 수 있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전각이라는 예술을 부활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인들 및 예비 예술인들이 본인들의 작품의 마무리를 서양식의 sign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한국인이 만든 작품들을 한국의 얼이 담겨 있는 한글 낙관으로 마무리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리고 전통의 미도 알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화도시의정부에서 선두가 되어 전통을 알리는 문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전통과 현대의 미가 공존하는 더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실험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술이란 한순간에 완성되는 건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한 명의 인장을 완성하기까지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받으실 분의 성품과 이미지를 작은 돌 안에 표현해야 하는 일이기에 디자인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협의하고 디자인대로 작은 돌 안에 직접 새겨 넣는 일은 숙련된 기술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계로 새겨 넣는 도장이 아니라 손과 칼날로 돌에 새기며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완성해야 합니다. 돌을 새기다 보면 때론 생각 못 한 실수가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전각이라는 예술이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실험을 진행하며 저는 전각이라는 예술성에 더 매료될 수 있었고 받으시는 분들의 작품에 낙관이 찍히며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도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지만 도장으로 마무리하니 더 멋스럽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전각에 관하여 관심을 두게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만의 도장들이 예술인들의 손에서 작품을 빛내는 마지막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강신아
sign 대신 도장으로!!
미학이 들어있는 도장에는 sign이 갖고 있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는 애송시 한편 '행복을 담다'

실험지기
김기묘

실험실 한줄소개
시 낭송 공연을 통하여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인문학이 '꽃 피는 시간'



육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육 시설장으로 유아들을 위한 일을 하였고 사회복지사로서 다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년 12월에 퇴직 후 현재는 시 낭송가로 활동하며 37년째 의정부에 살고 있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인문학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물질만능의 시대에, 삶을 자연과 사물에 은유하여 노래한 시를 접함으로써 삶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시 낭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전국 시 낭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의정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가 오고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가 급격히 증가하며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 낭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지만, 시니어들의 치매,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마음입니다.

이번 실험은 저에게 용기와 꿈을 주었습니다. 함께 시를 찾고 분석하며 외우는 과정을 거쳐 공연을 올리며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큰 자신감과 보람을 분명히 느낄 것이라 확신했는데 결과는 몇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을 운영하면서 의정부가 문화도시라는 것도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100만원실험실을 통하여 시 낭송 콘서트까지 열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열기 위해 시를 외우는 과정에서 잠을 자면서도 시를 외우는 모습을 연출했는가 하면 식사를 준비하면서, 시장에 가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외우는 바람에 전 출연진 100% 암송으로 이루어진 콘서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연 준비 과정에서 서로 협동하고 챙기고 나누는 모습은 서로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단 한 명의 탈락도 없이 앞으로도 시 낭송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결과물을 얻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이 주신 커다란 혜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묘 전국적으로 인문학의 꽃인 시 낭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박한 요즘, 시를 통하여 위로받고 그 감성을 시낭송이란 공연을 하며 행복한 취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 의정부 시민에게 소개합니다.



'나' 들여다보기

실험지기
김해린

실험실 한줄소개
연극치료 기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는 시간

저는 연극 배우이자, 교육연극예술 강사이자, 연극치료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21년도에 저는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심리상담 치료를 받던 중 연극치료를 공부해서 자가 치유를 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심리'에 관한 것이 학창 시절 필수 교육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지만, 저의 작은 한 걸음인 100만원실험실의 과정들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실험실 첫날은 몹시 긴장한 상태로 갔습니다. 대부분 처음 만나 뵙는 사람들이었고, 연령대도 직업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이 계속 이 프로그램에서 뭘 가져가야 하는지를 물어 보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스스로가 느끼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첫날의 기억은 너무 정신이 없었던 터라 어떻게 진행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너무 즐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날을 겪어 보시고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해하셨던 것 같고 모두가 낯선 타인이었던 때와는 조금 달리 그래도 안면이 있는 얼굴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조금은 친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가 정말 연극치료기법을 많이 활용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제가 처음 연극치료를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함께 느껴주시고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즘의 걱정거리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몸을 쓰고 연기를 하는 생소한 과정들을 통해 느껴주셔서 저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오셨던 참여자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서로 긍정의 칭찬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에너지를 느꼈다.", "이게 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서로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셔서 아, 잘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린 이 과정들을 통해 참여자들이 나를 조금 더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험의 과정과 결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생각하기에 과정은 사진으로 기록하되, 결과물은 참여자들이 직접 글 또는 그림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중랑천과 노래를 잇다
(중랑천go 노래go)

실험지기
서수연

실험실 한줄소개
중랑천을 걸으며
들리는 노래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작은 콘서트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쿨렐레와 칼림바 등 악기 연주를 학생들과 하다가 연령층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친근하고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랑천에서 공연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중랑천 공연은 생태하천과를 통해 행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생태하천과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관객 의자, 전기, 예쁜 무대를 직원들이 일요임 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획자, 연주자 등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했던 실험이었습니다.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기획한 중랑천 공연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을 작은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관객이 즐기고 바라던 대로 산책로를 지나던 사람들도 발을 멈추고 함께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순서대로 공연하면서 다양한 악기를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악기 이름과 소리도 들려주고 곡에 활용하여 연주했습니다. (카주, 슬라이드 휘슬, 우드블록, 도자기 새소리, 오카리나, 카혼, 칼림바, 실로폰, 멜로디언 등) 중간에 사회자가 퀴즈를 내고 선물도 주면서 시민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연습을 했는데 큰 실수 없이 잘해 주었고 청중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수연

작은 무대가 주어진다면
시민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현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름 카메라로 바라본 의정부

실험지기
안지현

실험실 한줄소개
평소 쉽게 지나쳤던
의정부의 모습을 필름
카메라를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프로젝트

의정부에서만 살아온 의정부 토박이로 뒤늦게 의정부에서 즐길 수 있는 재밋거리를 찾고 있는 탐색자이자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문득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의정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무작정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들고 의정부 동네 곳곳을 걸어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름 카메라로 바라본 의정부'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풍경마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동네 역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동네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경험을 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인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사진 속에 담긴 의정부의 모습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사진 속 의정부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과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각자 그 모습을 사진에 담게 된 이유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정부에 대한 애착과 관심, 그리고 또 다른 의정부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참여자들도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주변을 필름 카메라를 통해 돌아보면서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자 추억이었고, 의정부에 살지만 평소 가보지 못했던 장소들을 걸어서 다녀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결과물로 제작한 사진엽서를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의정부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며 의정부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지현

각각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가까이서 보면
사진이 다 달라요. 같은 골목을 찍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골목 전체를,
어떤 사람은 골목 가까이를 찍었죠.



각자가 가진 매력이 다 다르다 보니
사진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 백영수미술관!
(백영수1922 확장판)

실험지기
이홍

실험실 한줄소개
백영수미술관 홍보를 위해 미술관 가는 길을 '백영수문화거리'로 만들기 <소규모예술인 장터 & 지역주민 도슨트(docent)>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취미로 첼로를 연주하며 미술과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은 50대 가정주부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333문화살롱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다 살롱의 장소가 '백영수미술관'이었습니다. 너무도 좋은 공간, 늘 좋은 전시가 열리는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의정부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문화를 함께 누리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의정부라 일컬어지지만, 시립미술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속상해하며 그나마 우리 의정부시에는 '백영수미술관'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미술관을 알리고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은 페이스북 친구들(202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실험실 '안녕? 백영수미술관!'의 시작부터 마지막 회기까지 피드를 올리고 홍보하면서 미술관에 관한 관심과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망월사역에서 전단(100매)을 나누며 신한대학교 학생들과 망월사역 인근 주민들에게 미술관 홍보, 전시 일정, 휴관일을 안내하는 거리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백영수미술관의 문화예술인들의 커뮤니티(Community) 공간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 이번 실험실의 소소한 목표였던 것처럼 거의 모든 회기와 활동을, 미술관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백영수미술문화거리 골목 도슨트를 운영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로 문화의 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이번 실험실을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도서관이나 미술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열리는 지역사회 활동 작가님들의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를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가 없게 되었으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문화소비의 행복한 주체자가 되어 기꺼이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홍 우리 의정부시에는 '백영수미술관'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미술관을 알리고 싶었어요.



찍고 찍다 : 사진과 글로 의정부를 담아내다

실험지기
전규민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곳곳의 추억을 필름 카메라로 찍고, 우리의 기억을 담은 글을 찍어낸 에세이집 제작하기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도 관심이 많고, 추억의 공간과 좋은 공간들이 사라지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의정부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추억들도, 우리가 소중한지 몰랐지만 돌이켜 보니 소중했던 곳들도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추억들이 오래오래 남아 있도록, 이미 사라진 곳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의미에서 사진을 찍고 글을 써 에세이집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필름 카메라로 우리를 찍어 주시던 것처럼 저도 의정부를 여러 번 찍고, 삭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신중하게 찍고 기다리는 필름 카메라로 담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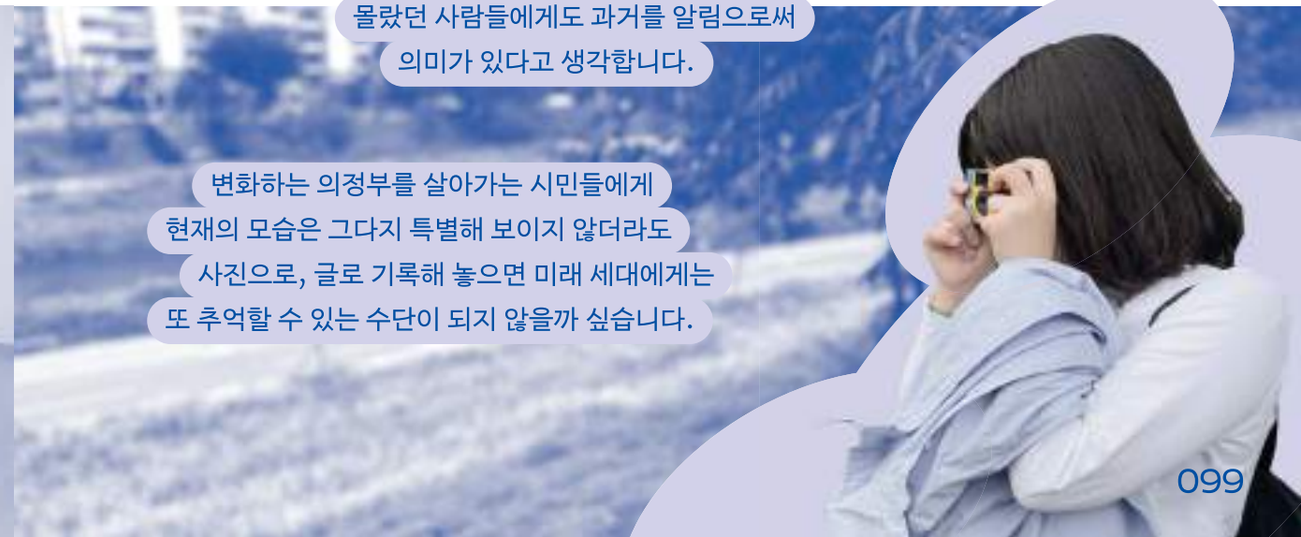
주관적이거나 뻔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들을 다루기 위해 의정부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육십 평생 의정부 밖에서 살아본 적 없다는 택시 기사, 결혼 후 의정부에 살게 된 청년 세 명과 의정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팀원, 인터뷰이들과 의정부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며 느낀 것은, 의정부가 변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만은 기록으로 잘 남겨지기를 모두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소중한 기억일 것이며,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순간이므로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규민 과거의 그 장소를 기억 속에 간직했던 사람들은 본 활동을 통해 추억에 잠길 수 있고,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과거를 알림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의정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모습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더라도 사진으로, 글로 기록해 놓으면 미래 세대에게는 또 추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감정> 참여형 전시회

실험지기
정지윤

실험실 한줄소개
활동지에 따라
움직여 보며 '나'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기

저는 연극 분야(연출, 작가, 배우, 교육 연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의정부에 2018년 이사를 오며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우연히 작년에 100만원실험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험지기로 활동을 해 보며 시민들과 함께 독백 만들기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나와 나의 감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는 본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인쇄물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 직접 움직여 보고 만들어 보며 오롯이 나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도록 '참여형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흥미, 의지 등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형태로 만들어 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전시회를 나가게 되는 순간 입체적으로 드러난 '나의 감정', '나'를 돌아보며 이 순간이 삶의 기폭제가 되어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감각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실험을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내 안의 가능성과 나의 의지, 목표, 욕구, 감정 등을 찾아 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준비했으며 인쇄물에는 총 9개의 활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감정을 그대로 느껴 보고 탐색하며 나의 감정 표현하기, 나의 언어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적기, 나의 관심사, 욕구, 목표,

본 실험을 진행하며 더 많은 활동을 추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분마다 소요 시간을 고려해 9가지 활동으로 정리하며 포기한 활동들도 있었는데 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넣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가 된다면 이번 실험을 확장해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정지윤 참여자들이 '나'에 대해 생각해 보고 표현하며 내 안의 욕구와 감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험이 되도록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정부 굿스팟 인생 네컷! 다큐에 담다

실험지기
차준호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 출신 생초보
신인 사진작가의
의정부 굿 스팟!
인생 네 컷!
그리고 촬영 여행기
다큐멘터리 제작하기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을 습관화할 정도로 영상과 사진을 좋아하는 차 씨 아저씨, 차준호입니다.

의정부에서 오래 사신 70대 어른이 카메라를 들고 핫스팟 네 곳을 촬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해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실험입니다. 70대 노인이 바라본 의정부 핫스팟 네 곳의 사진, 그리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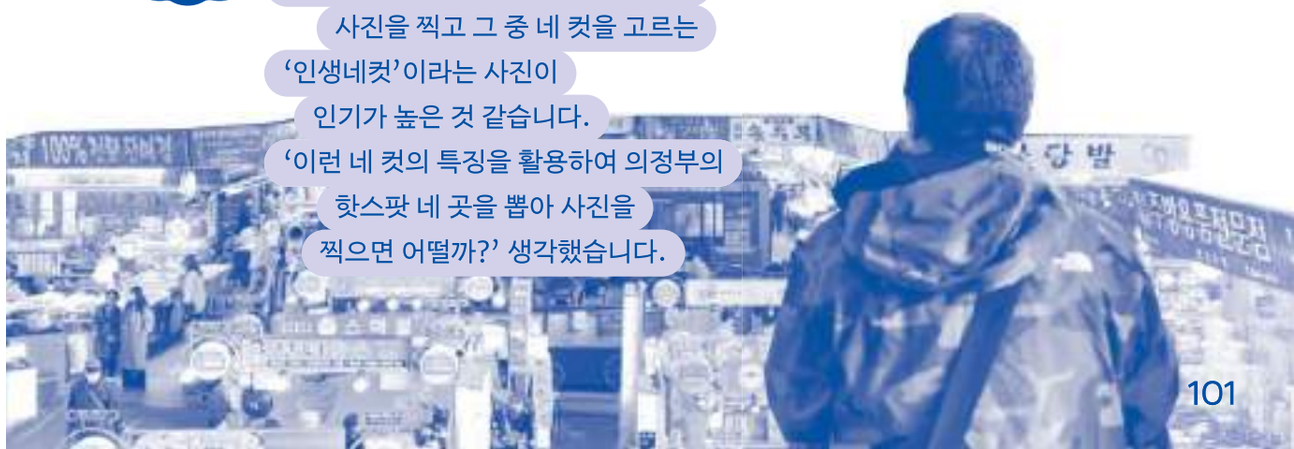
요즘 10대와 20대들 사이에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그중 네 컷을 고르는 '인생네컷'이라는 사진이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컷의 특징을 활용하여 의정부의 핫스팟 네 곳을 뽑아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70대 어르신과 만남을 통해 의정부의 핫스팟 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70대 어르신의 추억이 담긴 장소와 직접 선정하신 의정부의 핫스팟이자 굿스팟을 할아버지께서 직접 촬영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본 의정부 굿스팟 사진들은 다큐멘터리로 실험에 담겼습니다. 촬영한 장소는 의정부제일시장, 부대찌개 거리, 송산사지근린공원 그리고 의정부경전철입니다. 4곳이 주는 의미와 왜 이곳을 선택해서 촬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생각을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촬영 편집은 제가 하는 일 중 하나라서 저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새로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해 주신 어르신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며 다시금 제가 하는 일과 이번 실험에 더욱 보람을 느끼고 저만의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험하는 과정은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부가 예전에는 그저 경기도에 있는 어느 도시구나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즐기는 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단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즐겁고 추억이 되듯, 내가 사는 의정부를 더 많이 걷고 그 과정을 영상에 담으며 의정부를 더욱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차준호 요즘 10대와 20대들 사이에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그 중 네 컷을 고르는 '인생네컷'이라는 사진이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컷의 특징을 활용하여 의정부의 핫스팟 네 곳을 뽑아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둥근 평화의 춤, 써클댄스

실험지기
추아영

실험실 한줄소개
누구나 쉽게 따라 하며 일상의 작은 축제이자, 명상과 기도가 되는 춤으로 자연과 교감하고 평화와 치유를 나누는 시간

저는 자본이나 소비산업 중심의 대중문화보다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만들고 누리는 대안적인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성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관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서로를 치유하고 화합해 왔습니다.

유럽의 여러 커뮤니티를 여행하면서 써클댄스(Circle Dance)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써클댄스는 공동체 문화 예술의 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권과 장르의 음악에 단순한 스텝을 붙여 다 함께 안무를 따라 추는 원형의 공동체 춤입니다. 춤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거나 긴장되는 사람도 음악에 맞춰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깊은 평화와 기쁨, 힘을 느끼게 됩니다.

써클댄스는 다양한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영적인 면을 가장 자연스럽게 통합하며 공동체성과 연결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춤이라고 했을 때 낯설고 긴장하기 쉬운데, 써클댄스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축제 춤이 되기도 하고, 의례가 되기도 하며, 걷기 명상이나 기도 춤이 되기도 합니다.

의정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군사도시, 경기북부, 부대찌개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은 초, 중,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나온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시에 살았을 때보다 미군 캠프라든가, 군사도시로서의 특징과 긴장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춤이라는 예술을 통해 의정부에 평화와 치유의 에너지가 담긴 문화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실험실을 기획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지역과 공간에서 사람들과 시도하던 것들을 제가 사는 의정부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의정부에서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추아영
써클댄스를 통해 계절의 아름다움과 지구, 자연과 교감하며 평화를 기원하고, 개인에게 치유가 되는 삶의 주제들을 가진



음악과 춤으로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너도나도 의정부 홍보대사

실험지기
김영훈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UJB) 디자인 티셔츠를 나눠주어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는 실험!

결혼 후 의정부로 이사 오게 되어 현재 거주한 지 2년 된 신입 의정부 시민 김영훈입니다. 저는 다방면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비보이, 그래픽디자이너, 영상 촬영/제작/편집 P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온 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의정부가 홍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점이 실험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를 여기저기 동네방네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의정부(UJB)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입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의정부가 홍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험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았고, 제가 의정부로 이사 오면서 느꼈던, 의정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정부'라는 이름에 대한 애정도가 높아서 다들 흔쾌히 재밌게 참여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야만 티셔츠를 받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긴다면 협업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문화도시실험실 '콜렉티-부'의 마그넷과, 후드티, 긴팔 티 3종의 선물 중에서 뽑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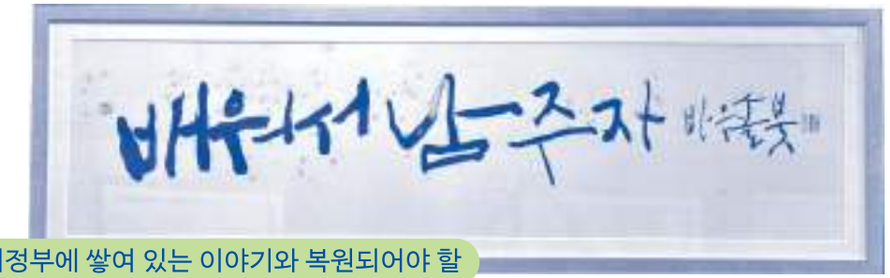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음에도 티셔츠 한정 수량 60장을 훨씬 넘어 참여하러 오신 분들이 최소 100분은 되었습니다. 티셔츠 수량이 극소량에 한정적이어서 제가 예상했던 변화에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티셔츠를 나눠주던 실험 당일에 참여는 못 했으나 의정부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험이 끝나고도 추가 발매는 언제 되는지, 또 언제 나눠주는지 여러 긍정적인 관심과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영훈
'의정부'라는 타이틀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들처럼 디자인(아트워크) 작업을 하여 의정부를 보다 쉽고 직관적이고 이쁘게 알릴 수 있는 티셔츠를 제작했습니다.



그 티셔츠를 의정부에 방문한 '남녀노소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실험실 이름처럼 '너도나도 의정부 홍보대사'를 실현해 보았습니다.

43년 역사 '노성야학' 20세기 역사앨범을 복원하다!!!



백유진

의정부에 쌓여 있는 이야기와 복원되어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모두 정리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 '노성야학'의 이야기만이라도 복원하고 싶었어요.

실험지기
백유진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지역 인재들의 추억을 되짚는 계기 마련 (박상욱, 황미향 등)

가능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만 55년을 동네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문화관광해설사로 문화관광자원 안내와 의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에 있는 노성야학에서 1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나만의 스타일로 역사적 성찰의 고민을 담아내려 합니다.

실험을 진행하던 9월, 의정부문화원에 문학 박사님을 비롯한 시민분들이(9명) 오셔서 때 묻은 사진들을 시대별로 정리해 주셔서 한시름 덜었고, 노성 50년사를 기록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의정부정보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야학 후배를 통해 그 시절 친했던 박상욱(대학생) 교감을 30년 넘어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야학이 지속되었는지 들으며 경민대학교에서 교수하시는 1984년 당시 야학에서 봉사하신 선배님의 문집을 입수해 야학 정리에 추가했습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박람회에서 과거 교장을 하셨던 이복기 선생님과 현재 영어 선생님이신 윤주형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길고 긴 노성의 역사와 시기별 운영 방식을 소개해 드린 것이 나름 참신한 접근이었습니다.

서(西)의정부 지역의 역사적 태동과 교육 가치의 전승이라는 거대 담론을 느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반면, 에디터님을 포함한 몇몇 분과 43년 역사 노성야학에서 의정부 지역의 가르침과 배움을 현재 수행 중인 수도자 본인은 열정만큼이나 확장성의 한계를 강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문화원에 전체 자료를 공유해 드렸으니, 20세기 서(西)의정부 지역 청년학도들의 열정과 헌신이 새롭게 조명되리라는 새로운 가설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 의정부 노성야학이 누구 한 사람의 노성이 아닌 집단지성의 힘이 발현되는 최적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뽕 프로젝트

실험지기
송재용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인만 모르는 의정부 자원 찾기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자원 발굴)

'의정부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십중팔구는 부대찌개를 얘기합니다. 의정부컬링경기장과 의정부음악/미술도서관 등 신흥 관광 자원이 있지만, 전통적 자연 관광 자원의 부재로 의정부를 찾는 외지인 가운데 관광 목적의 방문은 거의 전무합니다.

군사도시 외 지역 관광 자원을 말할 때 절과 묘를 빼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2022년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지도는 아니고 '의정부로-마블'이라는 보드게임 형식이었습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러브콜을 받아 양산되었고, 현재는 의정부 관내 초등학교 30여 곳에서 사회 과목 내 의정부학 교보재로 사용 중입니다.

더 나아가 의정부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 자원을 만들고 싶었고, 지역 유산을 발굴해 스토리를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역 자원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자원 발굴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부대찌개에 버금가는, 100개의 절이나 묘 대신 제대로 이야기할 하나의 자원을 찾아보자는 뻘짓(허튼짓)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최대한 대중이 익숙하지 않을 것. 둘째,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팩트를 가질 것. 셋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인물, 사건,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을 고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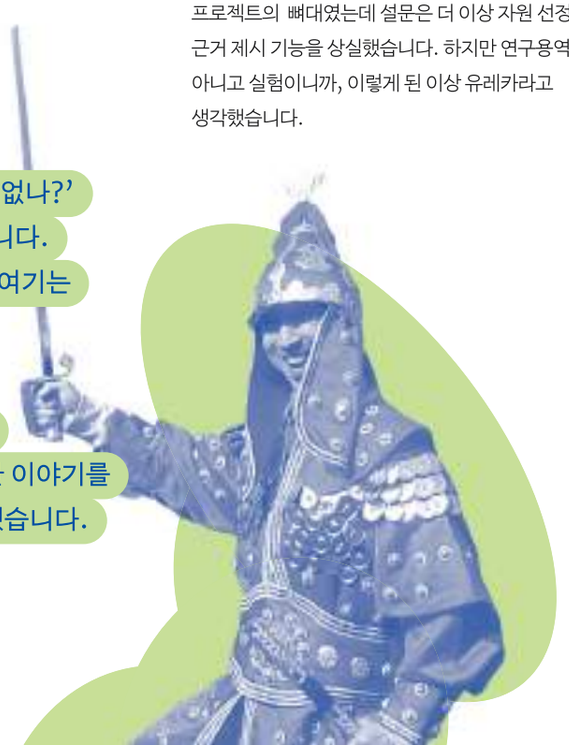
평소 의정부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지역에 살기도 하거니와 지역 자원 발굴에 있어서는 준전문가라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뽕 프로젝트' 설문지도 미리 완성해 놓았습니다.

2년 전 참여했던 의정부문화예술기획학교 지역 과정부터 이듬해 연수 과정까지, 그때도 찾지 못했던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설계한 설문을 두 달에 걸쳐 받았는데, 보기 문항에 있지도 않은, 무려 일만 년 전의 자원이 더해져 버린 것입니다.

설문을 토대로 한 최종 후보 명단 도출이 프로젝트의 뼈대였는데 설문은 더 이상 자원 선정의 근거 제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도 아니고 실험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유레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재용

'의정부는 부대찌개 말곤 뭐 없나?'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의정부 시민조차 낯설게 여기는 의정부만의 자원을 찾기 위해 먼저 자료를 통한 자원 발굴이 필요했고, 다음 단계로 그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실험에 접근했습니다.



의정부 졸업 사진 축제

실험지기
이근호

실험실 한줄소개
전국에 알려진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사진 퍼포먼스를 의정부시 문화로 발전시켜 의정부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 형성

저는 의정부에서 초, 중, 고를 나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였던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퍼포먼스에서 힌트를 얻어 이를 전체 시민의 축제로 확산시키고, 이런 멋진 문화로 의외로 부정적인 의정부시의 이미지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험실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표현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축제라기보다는 실험이라 작고 빈약하여 시민들의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있었으나, 표현의 욕구와 참여 열기는 작은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이 진행된 '행복로'는 의정부, 문화도시의정부의 훌륭한 자원이기에 실험 장소로 최고였습니다.



20~30대 연인, 40~50대 가족들, 그리고 행복로에서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 모두 추억을 만들려는 기쁨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아름다운 추억이 사람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번 실험을 더욱 심도 있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험의 확대와 홍보를 통해 의정부 전체 시민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 사진은 최고의 축제 소재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의정부시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근호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여전히 군사도시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도, 긍정적이고 재밌는 것들도 많죠.

특히 의정부고 졸업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의정부고만의 졸업 사진 문화를 의정부 지역문화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실험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청룡마을 사진 전시회

실험지기
김현아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사에 전시한다

저는 의정부시 신곡 1동에서 태어나 의정부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현재 행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대학교에서 사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무심히 거리와 집과 놀이터, 경로당을 찍어 보았습니다. 재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집들과 거리는 노후되어 쓰러져가기도 하고, 또는 새 빌라 건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주택가 중간중간에는 신당과 점집도 있는 묘한 동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나는 의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전을 할 기회가 주어지니 저에게는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의정부를 새로 보게 된 것입니다. 저의 동네를 비롯하여 의정부는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의정부 청년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정부경전철 내에 '전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곳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에 경전철 관련 부서가 있으며 경전철 내 전시 공간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동 시 전시를 많이 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첫 실험실명은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전시회'였지만, 실제 전시는 경전철역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원실험실뿐만 아니라 사전에 진행된 생각확장 워크숍을 통해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의정부의 문화에 대해 관심도 많고 실제로 행동도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정부는 생각보다 역동적인 도시이자 할 게 많은 멋진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00만원실험실을 통해 사진작가로 데뷔하게 된 점이 기쁘고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욱 '마음을 울리는' 사진을 찍고, 가능한 사진전을 꾸준히 해 보고 싶습니다.

김현아 의정부의 좋아하는 동네와 그와 관련된 추억을 공유하는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발전시키다 보니, 작은 동네에서 범위를 확장해 의정부시 일대를 촬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저희는 '의정부시에는 숨어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많고 그러한 의정부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실험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숏폼으로 사귀는 의정부 친구, 숏폼으로 만나는 의정부 명소

실험지기
이은비

실험실 한줄소개
의정부에 사는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함께 숏폼(짧은 영상)을 찍으며 의정부의 명소들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의정부로 이사 온 지 두 달 된 의정부 초보로 의정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처럼 의정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의정부 명소나 재밌는 놀 거리를 알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숏폼(짧은 영상)은 짧고 간결한 형식으로 찍은 영상으로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해 주는 장점 때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메인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콘텐츠를 활용하면 의정부 명소들의 매력을 눈에 띄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의정부 친구들과도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10명 모집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여 총 12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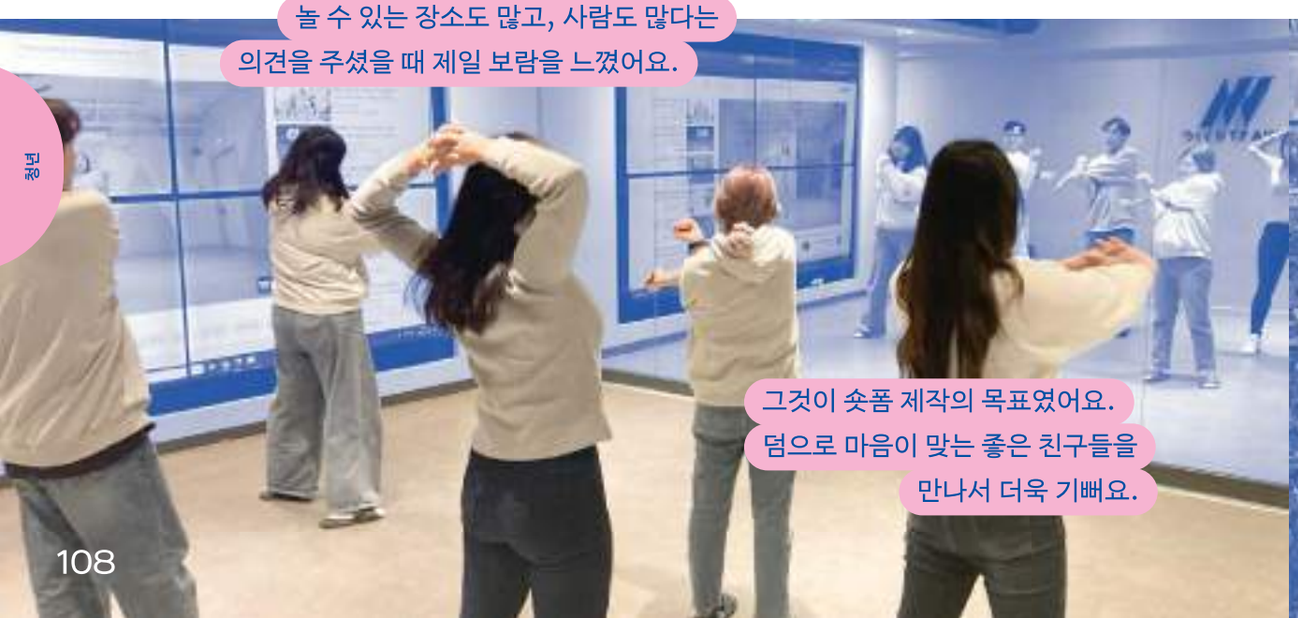
영상은 지역에서 유명한 곳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본 야경에 초점을 맞춰 촬영하여 밤에 본 경전철의 매력을 살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성계 동상 앞에서도 인스타그램 '릴스'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유동 인구가 많아 사람들의 통행로를 막거나 시선이 많이 쏠려서 의정부역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밤에 청년몰(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곡을 완성하지 않아도 춤과 영상을 즐길 수 있어서 인스타그램 릴스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모여서 함께 촬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의정부라는 지역의 명소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은비
숏폼을 본 분들이 의정부가 생각보다 놀 수 있는 장소도 많고, 사람도 많다는 의견을 주셨을 때 제일 보람을 느꼈어요.



그것이 숏폼 제작의 목표였어요. 덤으로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더욱 기뻐요.

숲을 읽어주는 아빠

실험지기
송은영

실험실 한줄소개
아빠와 자녀가 함께 숲 놀이를 하면서 소통하고, 숲이 주는 즐거움과 고마움을 알아 보는 소중한 시간을 만듭니다

저는 의정부 시민으로 숲 관련 직업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침에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배웁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 중 최초 10년이 남은 일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혼자 지내는 아동들의 심리 불안이 커지고, 협동과 배려가 부족한 외동아이들이 늘어나는 등 현대사회의 사회·정신적 문제의 해결책을 자연 속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이들이 숲속에서 활동하며 인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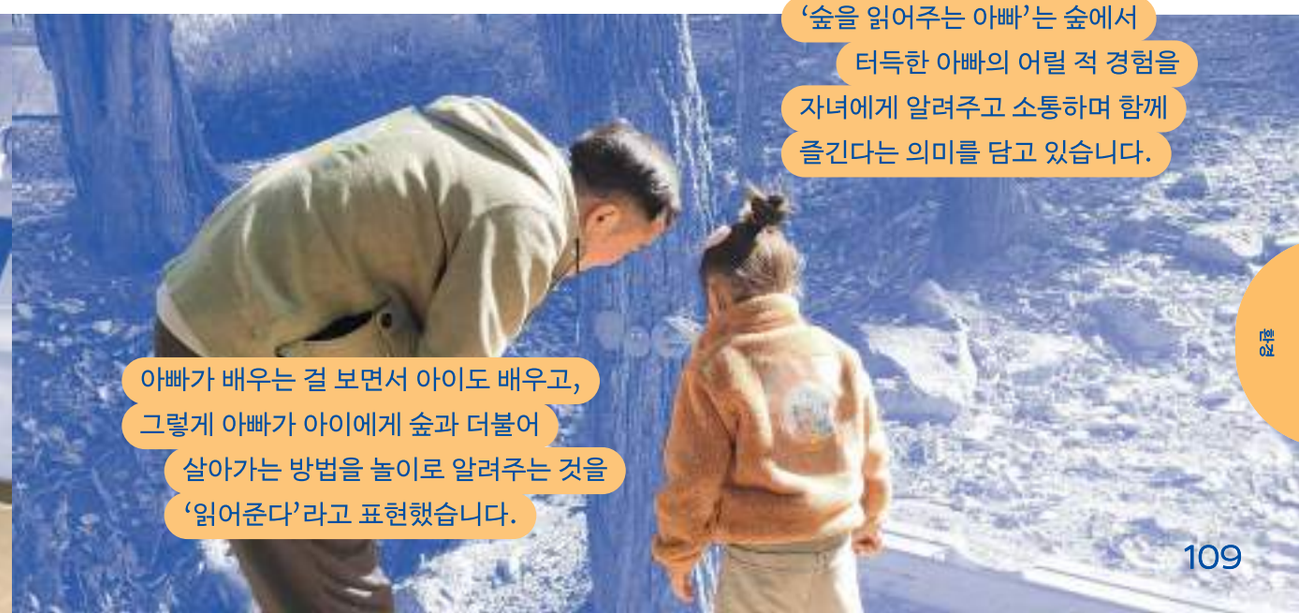
유아들을 자연으로 이끌어내어 맑은 공기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며, 자연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체적 만족감과 정서적 기쁨,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이들과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는 아빠와 아이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 친밀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참여자 모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몇 곳 알아 보았지만, 10월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달이라 그 또한 어려웠습니다. 장소도 주말에 다 일정이 잡혀있어서 평일로 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업은 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인데 생업 등의 문제로 아빠의 참여가 어려웠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명 정도 참여하여 성의껏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열정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에 실험실을 진행하는 저희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항상 자연과 함께한다는 것은 신선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진행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돌아가는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물어 보니 다들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힘이 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진행할지 팀원들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은영
'숲을 읽어주는 아빠'는 숲에서 터득한 아빠의 어릴 적 경험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소통하며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빠가 배우는 걸 보면서 아이도 배우고, 그렇게 아빠가 아이에게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놀이로 알려주는 것을 '읽어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명절보자기 리사이클링

실험지기
이예진

실험실 한줄소개
명절에 받은 선물 포장용 보자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하기

전통 먹거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보자기의 사용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좋은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을 때 종이 포장지 대신 원단으로 만들어진 보자기를 사용하려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보자기는 세탁이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선택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르며, 집에는 재사용을 기다리는 보자기와 함께 비닐봉지가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다양한 종류의 보자기를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전통문화를 지키며 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자기 포장' 클래스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포장법을 배우고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이로써 일회용 포장재를 대체할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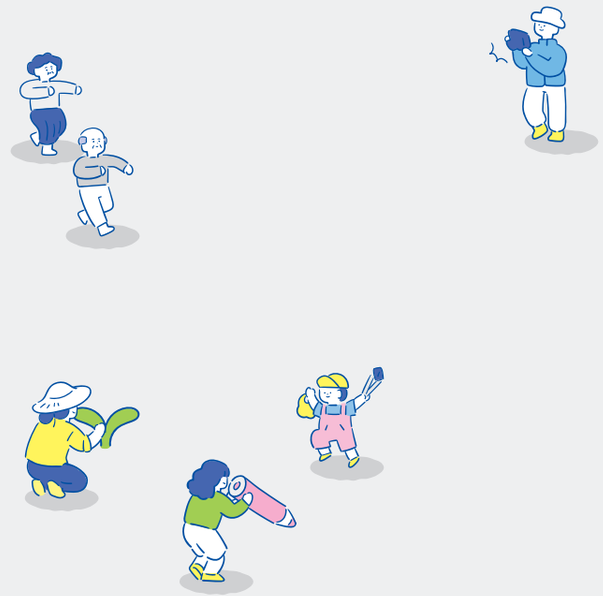


버려지는, 혹은 버리지 못하고 보관 중인 수많은 보자기로 만든 에코백은 제 주변의 경우 일상에서 장바구니만 아니라 독특한 패션 아이템으로도 이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환경과 전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예진 '보자기 포장' 클래스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높아지리라 생각해요.



하반기 END

문화도시
의정부

SNS·WEB

의정부문화재단 www.uac.or.kr

문화도시의정부 인스타그램 @ccity_ujb

문화도시의정부 페이스북 @ccityujb

*문화도시의정부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는
좌측의 QR 코드(링크트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발행인 대표 박희성

발행일 2023년 12월 29일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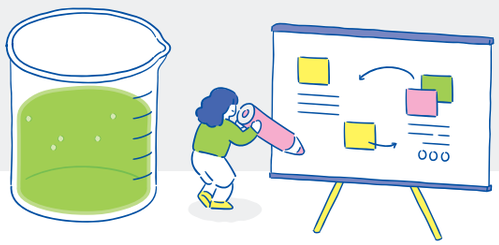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센터장 소홍삼,
강창모, 김미정, 박수빈,
백정희, 심하은, 오현주,
이동수, 이민형, 이사야,
이예닮, 이예진, 이은풍

글 2023 100만원실험지기, 문화도시 에디터, 강민지, 이예닮

편집 조혜영, 강민지

디자인·제작 온더덩

ISBN 979-11-982014-3-0



의정부 구석구석 100만원실험실

2023 <100만원실험실> 아카이빙북

(재)의정부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의정부예술의전당

T. 031-850-5182/5123~4 **M.** ccity_ujb@naver.com

© 의정부문화재단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의정부문화재단에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